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아르헨티나(ARGENTINA)
면적	2,780,400 km ²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10 기준(2019.1 확인 기준 최신 통계))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인구	44,494,502 명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10 기준(2019.1 확인 기준 최신 통계))
민족(인종)	백인 95%(이탈리아계 및 스페인계가 85%차지), 메스티소 4.5%(원주민과 유럽계 백인 혼혈), 원주민 0.3%, 기타 0.2%
언어	스페인어
종교	로마가톨릭교(92%), 기독교(2%), 유대교(2%), 기타(4%)
기후	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 4계절이 있고, 한국과 반대(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
국가원수	Mauricio Macri(마우리시오 마끄리 2015년 12월 10일 취임)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02-15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문화협정 서명	1970-01-04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문화협정	
발명특허권 보호협정	1972-08-14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 협력 협정	1980-02-14	한국전력-아르헨티나 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	
한아 경제공동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991-10-28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상용 복수 사증발급 각서	1992-07-16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상용 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	
투자보장협정서명	1996-09-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원자력 평화 협정	1997-09-19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범죄인 인도 협정	2000-11-09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3-02-12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항공업무협력 협정	2003-12-27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면제 협정	2004-01-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일반여권 비자 면제	2004-07-31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여권 비자 면제 시행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 한국학센터 설립약정	2004-11-29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 한국학센터 설립약정 서명	
경제무역협력협정 및 교육문화협력협정	2004-11-29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기타 자원협력약정 등 9개 경제관련 약정 서명)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2006-10-2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관상호지원약정	--	한-아 세관상호지원약정 서명	서명일 : 2010년 11월 26일
형사사법공조조약	2013-07-26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외교 원조 협정	2014-02-24	아르헨티나 공화국 외무부와 한국 외교 통상부의 외교 원조에 관한 협정	
국립공원관리기관 간 MOU 체결	2014-02-24	한-아 국립공원관리기관 간 MOU 체결, 국립외교원-아르헨티나 외교연수원 간 MOU 체결	
농업 진흥청-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간 MOU	2015-02-16	농업 진흥청-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간 MOU 체결	
전자정부 협력 MOU	2016-06-30	한-아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예술가레지던시 MOU	2016-09-30	한-아 예술가레지던시 MOU 체결	
국토정보공사 간 MOU	2016-11-18	한-아 국토정보공사 간 MOU 체결	

보건의료협력 분야 MOU	2016-11-22	한-아 보건의료협력 분야 MOU 체결	
식약처-아르헨티나 ANMAT 간 MOU	2016-12-07	한국 식약처-아르헨티나 ANMAT 간 MOU 체결	
헌법재판소-대법원 간 협력 MOU	2016-12-07	한-아 헌법재판소-대법원 간 협력 MOU 체결	
연구재단-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2017-01-13	한국 연구재단-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교육교류 기본협력 MOU	2017-12-19	한-아 교육교류 기본협력 MOU 체결	
한-아 사회보장협정	--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국민의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서명일 : 2018년 11월 27일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한-아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2019-01-27	한-아 워킹홀리데이협정으로, 18-30세의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간 아르헨티나에 체류 가능하며,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과 일시적인 취업을 통해 근로 경험 취득 가능	서명일 : 2018년 11월 27일 *서명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발효

〈자료원 : 외교부,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아르헨티나 조약 전자열람실(Biblioteca Digital de Tratados)〉

한국교민 수

30,000 명 (자료원 : 외교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협정들을 체결, 발효 중에 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부터 양국정상 간 상호방문이 실현되는 등 주요 인사 교류가 확대됐으며, 각종 협정 체결 및 양자협의회의 개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경제위기 극복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G20을 통해 14년 만에 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사회보장협정(문안 합의), 워킹홀리데이협정(문안 합의), 이중과세방지협정(협의 중) 등을 교섭 중에 있으며, 고위정책협의회 등 분야별 양자 대화채널이 가동*되었다.

* 경제 공동위('14.12, 5차 회의), 에너지자원협력위('17.3, 3차 회의), 산업협력위('17.3, 1차 회의), 고위정책협의회('17.11, 7차 회

의)

또한 아르헨티나 생산노동부는 양국 간 무역투자 진흥협력 로드맵 수립을 희망하여 우리나라 산업부에 로드맵 초안을 전달('18.11)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아르헨티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등을 통해 한국과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2017년 3월 예비 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최대 시장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5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 후 9월 제1차 협상이 개최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TA 발효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베네수엘라는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 한-메 TA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중

문화

한국 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을 통한 한류 전파 및 한국 문화 홍보, 양국의 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2006년 11월 30일에 개원, 한류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11월 7일, 한국문화원은 점점 늘어나는 한류 팬과 한국문화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보다 규모가 크고 현지인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역사적인 건물로 이전했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미술품 전시, 소규모 공연, 한국어·한식·한국화 강좌, 케이팝(K-pop) 감상, 한국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불고 있는 한류 기세를 몰아 한국문화 홍보뿐만 아니라 양국의 문화 교류도 증진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2.51	2.73	-1.82	2.85	-
명목GDP (십억\$)	563.61	642.46	554.11	637.56	475.43
1인당 GDP (PPP, \$)	20,008.32	20,551.86	20,178.85	20,918.1	20,609.83
정부부채 (% of GDP)	43.59	55.08	54.96	57.58	62.7
물가상승률 (%)	-	-	-	25.68	31.84
실업률 (%)	7.25	-	8.47	8.35	8.89
수출액 (백만\$)	71,976.7	56,751	57,732	-	-
수입액 (백만\$)	65,323	59,789	55,608	-	-
무역수지 (백만\$)	6,653.7	-3,038	2,124	-	-
외환 보유고 (백만\$)	29,117.61	23,512.78	36,409.17	53,118.6	64,049.67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8.08	9.23	14.76	16.56	28.09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지난 8년간 대중영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경제를 파탄 낸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물러나고, 우파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 정상궤도 안착을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마크리 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의 신뢰 회복 및 투자 증가로 '17년부터 빠른 성장을 보여 2.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였으나, 대외적 요인(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불신) 및 대내적 요인(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 내수시장의 침체,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인해 '18년에는 2.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보조금 삭감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0~40%에 이르는 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중이다. 2017년의 물가 상승률은 26.9%였으며 2018년에는 47.5%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총 재정채무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며, 2017년 57.1% 그리고 IMF의 채무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2018년 하반기에는 77.4%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 중반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2017년에도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입도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풀리면서 전년 대비 22% 급증하여 현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1억의 달러가 유입되며 아르헨티나에 요구된 개혁 정책에 따라 투자 신뢰도 향상 시 FDI 증가 및 외화 보유액 확대 등으로 아르헨티나 외채상환능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긴축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인해 점차 거시경제지표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망

2019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년보다는 희망적이다. 정부는 2019년에는 보다 적은 0.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의 2019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적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년에 균형예산 적자를 목표함으로써, 재정적자를 해결하면 국민적 삶의 질이 나아질 것과 동시에 국가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재정적자 0% 균형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컨설팅 업체 Ecolantia 에 따르면 201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0.75%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내외 투자를 장려하며, 실업률을 낮추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또한 목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외 경제의 흐름에 많은 타격을 입어 아직까지는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2019년에는 회복단계로 들어설 전망이다. IMF 차관의 유입은 현지 경제회복을 위한 열쇠로, 2019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경제회복에 포인트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의 극우파 보우소나루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2019년에는 브라질 경기회복도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19년 10월에 예정된 대선 경과에 따른 정권교체 불안정성 상존으로 경제침체 상황에 따라 정치 및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3,882,516,895
2	중화인민공화국	4,459,977,676
3	미국	4,081,933,148
4	칠레	2,791,564,449
5	베네수엘라	1,987,330,539
6	인도	1,810,469,124
7	스페인	1,693,787,331
8	캐나다	1,655,468,283
9	알제리	1,601,191,339
10	네덜란드	1,574,059,827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0,099,061,501
2	중화인민공화국	5,173,792,866
3	미국	3,432,524,873
4	칠레	2,403,268,040
5	인도	2,003,207,824
6	베트남	1,801,362,525
7	베네수엘라	1,370,027,161
8	스페인	1,361,871,088
9	독일	1,339,825,694

10	캐나다	1,294,929,708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9,027,619,164
2	미국	4,482,775,224
3	중화인민공화국	4,425,229,904
4	베트남	2,546,072,839
5	칠레	2,297,396,936
6	인도	2,208,521,323
7	이집트	1,791,720,207
8	스페인	1,627,938,499
9	독일	1,272,248,553
10	인도네시아	1,243,437,84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4,159,893,342
2	중화인민공화국	10,708,721,571
3	미국	8,833,822,235
4	독일	3,506,641,392
5	볼리비아	2,722,269,236
6	트리니다드 토바고	1,842,141,946
7	멕시코	1,640,771,258
8	이탈리아	1,628,173,965
9	프랑스	1,415,749,748
10	일본	1,373,941,20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3,006,155,699
2	중화인민공화국	11,742,518,187
3	미국	7,700,482,245
4	독일	3,130,093,466
5	멕시코	1,822,172,957
6	볼리비아	1,480,266,749
7	프랑스	1,450,262,886
8	이탈리아	1,369,850,306
9	일본	1,223,229,975
10	대한민국	1,069,556,374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3,597,452,017
2	중화인민공화국	10,467,476,060
3	미국	6,984,637,104
4	독일	3,053,218,554
5	멕시코	1,784,853,872
6	프랑스	1,447,324,414
7	이탈리아	1,435,503,132
8	타이	1,132,210,415
9	일본	953,418,910
10	스페인	920,985,52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837,635,727
2	120190	기타	3,748,345,337
3	100590	기타	3,333,569,018
4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294,413,333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158,057,714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875,316,195
7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1,826,015,895
8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1,619,748,121
9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305,165,003
10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1,175,269,704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673,249,292
2	120190	기타	4,251,797,006
3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691,393,246
4	100590	기타	3,057,250,781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510,434,969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265,084,957
7	100199	기타	1,015,495,212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952,548,917
9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39,738,471
10	030617	그 밖의 새우류	763,760,11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970,588,690
2	100590	기타	4,130,833,391
3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966,803,719
4	120190	기타	3,211,128,232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297,913,272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044,530,495
7	100199	기타	1,838,381,707
8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239,560,258
9	030617	그 밖의 새우류	1,002,815,475
10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39,876,72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81,553,788
2	100590	기타	3,822,637,426
3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640,717,711
4	120190	기타	2,718,259,610
5	100199	기타	2,360,490,482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259,647,742
7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224,110,838
8	030617	그 밖의 새우류	1,200,043,275
9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738,673,265
10	020130	뼈 없는 것	659,658,751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3,632,785,021
2	271111	천연가스	3,460,365,091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456,941,543
4	271121	천연가스	2,431,131,090
5	851770	부분품	1,356,408,980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947,992,553
7	300490	기타	776,924,851
8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758,278,644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750,472,869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07,623,673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2,351,424,393
2	271111	천연가스	2,169,238,424
3	271019	기타	2,085,113,253
4	851770	부분품	1,783,322,260
5	271121	천연가스	1,382,860,813
6	300490	기타	888,889,627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804,879,238
8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763,486,558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712,379,810
10	852990	기타	641,019,05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2,941,337,290
2	271019	기타	1,704,083,844
3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227,786,875
4	851770	부분품	1,223,952,078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100,003,023
6	271111	천연가스	996,704,920
7	300490	기타	880,642,907
8	271121	천연가스	742,734,854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42,088,777
10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629,580,86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730,506,880
2	271121	천연가스	1,257,723,192
3	271111	천연가스	973,710,207
4	300490	기타	957,585,568
5	120190	기타	699,830,590
6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685,387,320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55,187,605
8	380893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400,319,848
9	271600	전기에너지	383,665,326
10	293190	기타	383,246,945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754	501	253
2015	1,047	699	348
2016	796	833	-37
2017	836	612	224
2018	536	406	13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61	평판디스플레이	116	0	116
2	7420	자동차부품	57	0	56
3	7411	승용차	93	0	93
4	2140	합성수지	44	0	44
5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9	0	98
6	6137	도금강판	19	0	18
7	7251	건설중장비	30	0	30
8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	0	1
9	7412	화물자동차	37	0	36
10	7531	프레스금형	18	0	1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8361	평판디스플레이	60	0	60
2	7420	자동차부품	53	0	53
3	7411	승용차	44	0	44
4	2140	합성수지	35	0	35
5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24	0	24
6	6137	도금강판	22	0	22
7	7251	건설중장비	15	0	15
8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4	0	14
9	7412	화물자동차	13	0	13
10	7531	프레스금형	8	0	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239	-239
2	1112	은	0	56	-56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	28	-20
4	0419	기타어류	0	30	-30
5	0421	새우	0	14	-14
6	0131	식물성유지	0	88	-88
7	0111	곡류	0	0	-1
8	0191	천연섬유원료	0	8	-9
9	0431	오징어	0	3	-4
10	0157	주류	0	5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129	-129
2	1112	은	0	42	-42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	32	-27
4	0419	기타어류	0	31	-31

5	0421	새우	0	16	-16
6	0131	식물성유지	0	15	-15
7	0111	곡류	0	7	-7
8	0191	천연섬유원료	0	7	-7
9	0431	오징어	0	6	-6
10	0157	주류	0	4	-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MERCOSUR-칠레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1996-06-25	1996-10-01	ACE 35
MERCOSUR-볼리비아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1996-12-17	1997-02-28	ACE 36
MERCOSUR-페루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페루	2005-11-30	2006-06-02	ACE 58
MERCOSUR-이스라엘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스라엘	2007-12-18	2010-07-01	
MERCOSUR-이집트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집트	2010-08-02	2017-09-01	
MERCOSUR-멕시코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멕시코	2002-09-27		자동차 부문 협정(ACE 55)
MERCOSUR-인도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	2004-01-25	2009-06-01	
MERCOSUR-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2004-10-18		AAP.CE 59
MERCOSUR-쿠바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2006-07-21	2007-03-26	AAP.CE 62
MERCOSUR-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008-12-15	2016-04-01	
아르헨티나-브라질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1990-12-20	1990-12-20	ACE 14
아르헨티나-칠레 PTA	아르헨티나, 칠레	1991-08-02	1991-08-02	AAP.CE 16
아르헨티나-파라과이 PTA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1992-11-06	1992-11-06	ACE 13
아르헨티나-우루과이 PTA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03-03-31	2003-05-01	AAP.CE 57
아르헨티나-멕시코 PTA	아르헨티나, 멕시코	2006-08-24	2007-01-01	ACE 6

〈자료원 : MERCOSUR 공식 홈페이지, Sice-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한-MERCOSUR TA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7.03.02 공식선언문 서명 2018.05.25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8.09.11~15 제 1차 공식협상 진행	2009년 TA추진에 MOU 작성 이후로 협상 진전은 없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15년 12월) 빠른 속도로 협의 진행 중
EU-MERCOSUR FTA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8.06.04~08 제 33차 공식협상 진행	2018년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19년으로 넘어간 상태.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으로 다자협상에서 양자협상으로 바뀔 가능성 존재
EFTA-MERCOSUR FTA	E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8.11.26~30 제 6차 협상 진행	EU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대폭으로 축소 중

〈자료원 : MERCOSUR 공식 홈페이지, Sice-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2917.32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etyl Phtalate (DOP))	반덤핑(규제중)	2017-04-04
2	8504.23	유입식 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2013-01-02
3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리이트 (PET 제품)	반덤핑(규제중)	2012-04-2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환율 유지, 국내 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 요인과 지식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 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의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고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돼 있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 0.1%를 농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DEHP, DBP,BBP, DINP, DNOP)를 함유한 완구 및 육아 제품
- 활성제약성분(IFA)으로 니메슬리드를 포함한 모든 제형의 의약 제품
- 가정용 백열전구
- 올라퀸독스 함유 의약품 및 식품 또는 동물 사료용 제품
- 비휘발성 물질 100g당 0.06g 이상의 납 포함한 페인트, 래커 및 바니쉬
- 1,880~1,900MHz 사이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전화기
- 순면
- 중고 타이어
- 중고 오토바이, 삼륜차 및 자동차
-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
- 중고 엔진
- 중고 의료기기

* 상기 수입 금지품목 이외에 HS Code 84, 85, 86, 87, 88, 89, 90류에 해당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경제부 시행령 909/94 호에 의거, 일정한 품질규격 심사 및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수입 가능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2015년 12월 출범한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외화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2012년부터 운영돼 오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를 2015년 12월 22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AFIP 일반 시행령 3823/15를 통해 21일 관보에 게재해 12월 23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수입신고제도(DJAI)는 2012년 1월부터 발동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국세청(AFIP)에 신고해 각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정책으로 일본, 미국 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도록 했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같은 무차별적 수입규제 정책이 아닌,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차이를 두고 있다. 하기에 설명할 수입비자동허가제에 포함되는 제품이 아닐 경우 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며, 최대 10일간의 승인절차와 180일간의 수입유효기간이 주어진다.

2) 수입비자동허가제(LNA)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2013년 폐지했던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수입비자동허가(LNA, Licencias NO Automaticas)와 허가가 불요한 자동허가(LA, Licencias Automaticas)로 나누어 SIMI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비자동허가에 해당하는 HS Code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추가 및 삭제를 반복하여 규제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 수정은 '18년도 3월에 진행되었고, 현재 약 1,300개의 HS Code가 당 허가제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 자동허가(LA)

- 자동허가(LA) 품목은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SIMI 신청번호와 함께 신고서에는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상담 바이어에 따르면 자동허가(LA)는 무난히 받을 수 있으며 승인 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수정 불가)

○ 수입비자동허가(LNA)

- 수입비자동허가제(LNA)에 들어가는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위주로, 섬유, 신발, 장난감, 자동차부품 등에 집중돼 있다.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자동허가(LA) 품목과 마찬가지로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의 신고서에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LNA)는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수입제품을 검사해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수입비자동허가(LNA)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각 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일(근무일 기준) 이상 걸린다고 한다.

* 참고사항: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로 수입제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같은 허가제 품목이라도 업체에 따라 수입승인에 차별을 둔다고 한다. (수입업체 로비 작용)

TBT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용품 등은 품질 인증을 받거나 형식 승인을 받거나 관계 당국에 제품 등록이 돼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통합인증제도는 없고, 품목별로 표준인증협회(IRAM), 산업기술청(INTI), 식약청(ANMAT), 통신위원회(CNC), 운송규제위원회(CNR)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IRAM 및 INTI의 인증 중 일부는 임의 인증도 포함하나, ANMAT 및 CNC 인증은 모두 강제 인증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운영돼 오던 수입규제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에 반대하는 WTO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이를 대체하

는 기술적 비관세 장벽을 대폭 늘려 수입률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위생 및 식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적 대외무역 장벽을 도입했는데, 예를 들면 IRAM과 INTI같은 공공기관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유효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허가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식품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에는 ANMAT(식약청) 또는 INTA 같은 기관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인증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표적 기술적 장벽

-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국내 기업 및 최혜국 대우
- 지리적 표시의 오용 지적 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
- 동물 사료, 향수, 화장품 및 MAT PREMIUMS 화장품, 산업 제품 및 장비 용품, 타이어에 대하여 더 높은 관세 적용
- 모든 분야(지정되지는 않음)에 대한 통합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IMI)을 적용해 비자등 수입을 적용하여 몇 제품을 수입하는 데에 제한 또는 금지하고, 수입허가 라이선스를 가진 소수에게만 수입자격 부여
- 섬유, 신발 및 부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제품 구성 및 재료에 대한 진술서(DJCP)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서류는 대외총괄 무역시스템(SISCO)에 전산플랫폼으로 공식화되며, 그 후 해당 사무국에서 제품의 출품에 있어 최대 120을 허용하는 승인코드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부한다.

2) 인증 발급기관

- 표준인증협회(IRAM,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 n y Certificacin)
 - IRAM은 전기·전자, 화학, 가스 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해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이다. IRAM은 개편된 1999년 7월 결정문(Disposicin 775/99)에 의거해 품목의 강제인증 및 자율인증기관으로 재편됐다. 이 기관은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 a Industrial)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SGS, IRAM, LATU((Laboratorio Tecnol gico del Uruguay) 등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완구 인증에서는 아르헨티나 완구협회(CAIJ), 스페인 완구공업조사협회(AIJU)와 협력관계에 있다.
-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청(ANMAT, Administraci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 a M dica)
 - 제정된 법률(Ley 16463/64)에 의거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간 의학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제조·가공·수입·수출 및 유통을 위해서 ANMAT에 등록해야 한다. 법령 17/06호에 의하면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인증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80일(9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 아르헨티나 통신위원회(CNC, Comisin Nacional de Comunicaciones)
 -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통신위원회(CNT, Comisi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와 우편 및 전신위원회(CNCT, Comisin Nacional de Correos y Tel égrafos)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전화, 인터넷, 오디오텍스트, 위성, 해상 및 항공 통신과 관련된 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를 관리, 유지, 모니터링 및 규제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관세제도 개요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Mercosur 협정에 따른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 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제3국"으로 분류, 같은 관세율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협약의 경우 남미공동시장 및 중남미 국가, 중동지역의 몇 국가와 체결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제품은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역외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모로코, CAS, 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

국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2) 남미공동시장 역외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스페인어 : AEC, Arancel Externo Comn)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역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로 설정돼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대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 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세율 확대 품목은 HS Code 100개로 정해졌으며, 관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공고됐다.

2014년 10월 대통령령 제1636호를 통해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남미 공동시장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n)보다는 높고 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인 35%를 넘지 않게 측정됐다.

3) 특혜관세

○ 중남미통합연합 회원국 특혜관세

- 중남미 11개국은 1981년 3월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n Latinoamericana delIntegracin)을 설립했다.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으로,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다.

각 회원국은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해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안데안 공동시장과의 특혜관세

- 안데안공동시장(Comunidad Andin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개국은 1998년 4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 MERCOSUR-SACU 특혜관세

- 2008년 7월 1일 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해 양측간 1,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증가세(AD VALOREM)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품목 분류는 HS Code를 기초로 한다. HS Code는 8단위 또는 9단위로 돼 있고,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단위로 돼 있으며, 이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 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 및 완제품일수록 관세가 높다.

품목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20%) 등

아르헨티나의 역외관세율은 ALAD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 http://consultawebv2.aladi.org/sicoexV2/jsfAranceles/arancel_vigente_item_entrada.seam?cid=144766
- 방법: Pais Informante에 Argentina로 입력 후 HS Code를 입력하면 Tasa de Estadística(통계세)와 Derecho de Importación(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가. 일반 통관절차

아르헨티나에서 통관신고는 마리아시스템(S.I.M.: Sistema Informtico Maria)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 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에서 마리아시스템으로 접속해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마감되면 마리아시스템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검사 방법이 지정돼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된다.

○ 통관절차 흐름

- ① 입항 확인(Malvina System을 통해 도착여부 확인 가능)
- ② 타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 ③ 수입신고
- ④ 수입물품 검사 신청(제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검사 실시)
- ⑤ 관세 등 세금 납부
- ⑥ 물품 통관

나. 통관 절차 및 시스템

○ 통관허가 절차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가 달라지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해서는 원산지과 관련해 좀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수입허가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를 신청해야 한다.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세관검사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1)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로 작용했던 사전수입신고제도(DJAI)와 달리,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며, 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적인게 특징이다.

수입 허가를 위해 요청되는 수입신고자료의 경우, 수입허가제에 따른 품목 구분(자동허가/비자동허가)에 따라 다르다.

① 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및 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상담 바이어에 따르면 자동허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으며, 승인 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② 비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자동허가와 마찬가지로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수입 비자동허가 품목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는 같지만 품목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보통 60일(근무일 기준) 이상 걸린다고 한다.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오차 범위는 FOB 가격은 7% 이내이며, 물량은 신고 물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7%까지는 신고 물량보다 적은 것을 허용한다. 신고서는 180일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

2) 세관검사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세관검사를 한다.

-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 적갈색 검사제(Canal Morad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10일 내외 소요

세세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에서 10일 내외가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된 평균 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을 6개월 이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보증금으로 공탁한다.

- 요청 선적 관련 서류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 포장명세서(P/L)
 -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번역 공증과 함께 제출될 수 있다.

3) 통관비용 및 세금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수출국에 따라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일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의 국가는 역외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n(TEC) 0~20%)를 부과하며, 아르헨티나의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는 역외공동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관세 외 통관 세금
 - 부가세(IVA): CIF 기준 10.5% 혹은 21%가 부과된다.
 - 추가부가세(IVA ADICIONAL): 업체의 생산용이 아닌 유통을 위한 제품일 경우 추가부가세 10% 혹은 20%가 부과된다.
 - 통계세(TASA DE ESTADISTICA): CIF 기준 0.5% 부과된다. 통계세의 경우 남미공동시장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소득세 : CIF 기준 3% 부과된다.
 - 이득세 : CIF 기준 1.5%부과된다.

다. 견본품 통관(importation de muestras) - 임시 통관(importacion temporal)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 및 재수출을 위해 견본품의 수출입을 허가한다. 임시 통관법에 의하면 수입을 진행할 시 물품은 상업 및 산업적 가치가 없으면 아르헨티나에 세금을 면제받고 유입되는 것을 허가한다. 다른 국가로 재수출을 위해 들어오는 품목들도 같은 법에 적용된다. 수입 전 임시통관으로 아르헨티나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 통관서류는 일반 통관 서류와 비슷하나 현지에서 머무르는 시간, 사유서, 제품 특징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에서 3년이며, 품목별로 다르다. 기간이 만료된 상품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을 시 아르헨티나 정부에 편입되거나 상품성을 없애기 위해 제품을 파괴한다. 수입품의 가치는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 통관 시 필요서류

- 사유서
- 상품의 특징 설명. 중량, 크기 등
- 국내에 머무르는 시간
- 일반/완전 수입시 부여되는 세금을 보증금으로 선납

통관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선적서류 준비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 심사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따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등록 통관사 이용

통관은 등록된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통관사를 선정하는 일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수출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통관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수입품목 중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수출입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도가 불투명해 세관에 따라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품 특성별로 전문 통관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관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통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고관세 부과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중남미 통합연합 회원국들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 3사도 매출액의 80~90%를 멕시코, 브라질 투자기업에서 구매한다. 자동차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돼 자동차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 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WTO 최고치인 35%). 아르헨티나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간재, 자본재를 제외한 완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어 정확한 관세 파악과 현지 시장의 가격 파악이 중요하다.

4) 최저 수입 가격제도

언더밸류 및 관세 포탈 행위를 근절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재도입해, 합성 필라멘트 직물, 의류 등 신고 수입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2007년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대폭 강화했고,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의거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통관 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lcomex S.A.

주소	Salta 188, CABA
전화번호	(+54 11) 5032-2002
이메일	info@alcomex.com.ar

홈페이지	http://alcomex.com.ar/custom/es/index
------	---

◦ Estudio Cuendias

주소	Florida 142, Piso 7, Oficina Q, CABA
전화번호	(+54 11) 4326-0239
이메일	comex@studiocuendias.com.ar
홈페이지	http://www.studiocuendias.com.ar/

◦ Fineport S.A.

주소	Peru 359 P.14 OF.1406 ,CABA
전화번호	(+54 11) 4342-7552
이메일	contacto@fineport.com.ar
홈페이지	http://www.fineport.com.ar/

◦ Waiver Logistics

주소	Alicia M. de Justo 2050 3er Piso of 307, CABA
전화번호	(+54 11) 5273-9700
이메일	repcion@waiverlog.com
홈페이지	http://www.waiverlogistics.com/

〈자료원 : ADUANA(아르헨티나 세관청)〉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현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화보유를 목적 및 자유로운 외화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르헨티나의 대외 경쟁력을 촉진 및 자본이 부족한 아르헨티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헌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처럼 노동권, 기업운영, 자산의 매매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에서 개발이 필요한 산업 위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세금공제가 많다.)

현재 외국인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과 총 수익금을 해외에 송금할 권리가 있으며, 현 정부의 외환규제 완화로 외국으로 송금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투자로 생긴 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소한의 기간(1년)이 지난 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 법률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체를 이용할 자격이 있으며, 행정명령 21382에 의거, 아르헨티나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1) 광산업 진흥 조세 인센티브

선택된 업체에 한해서 광물의 탐사, 개발, 준비, 추출 및 특정 처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각 지방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

- 부가세, 사회 보장세, 각 지방에서 부여하는 총 세금 부담 등이 회사의 출원일로부터 30년 동안 같은 가격에 유지된다.
- 로열티: 지방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추출된 광물 값의 3%로 제한된다.

2)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아르헨티나의 개발 및 연구회사는 연간 연구프로젝트에 지출되는 최대 10% 또는 5백만 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3) 자본 자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이 제도는 인프라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새롭게 진출 한 회사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중 하나로,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본 자산 또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산업 체제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하여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다. 법률 제26692에 따라, 납세자(법인 및 개인 모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국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세의 70%까지 감면된다. 또한, 60%까지 소득세가 공제된다.

5) 바이오 연료 산업

농업 원자재, 농공업 또는 농업 유기 폐기물에서 생산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및 농업에서 생산된 바이오 물질을 바이오 연료로 취급하며, 해당 당국이 설정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였을 때 소득세 및 부가세 감면 또는 연료운반 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6) 현대 생명공학

현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를 개발한 누구에게나 정부는 세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러한 조세 인센티브는 15년 동안 지속된다.

7) 특별경제구역 - 티에라 델 푸에고

정부는 티에라 델 푸에고에 설립된 모든 경제적 활동에 대해 조세를 매기지 않는다. 유동자산에 관한 수입 또는 수출 또한 세금에서 면제된다.

8) 신재생에너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까지 8%, 그리고 2025년까지 20%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개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조기 환급
- 이익으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에 손실이 생기면 세금이 감면된다. 기업의 손실보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 최소 추정 소득에 대한 세금: 이 법에 의해 승격된 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산은 최소 추정 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금융 부채의 재정적 부담의 경감: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이자 등의 재무적 책임을 감면해준다.
- 배당금 또는 배당이윤금에 대한 세금면제: 프로젝트를 소유한 회사가 배당한 배당금은 1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 세무 증명서: 투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전기 기계 설비에 대해 국가가 60%를 돌려준다. 이는 세금을 통해 환급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금(FODER)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유가 증권 발행,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신탁기금이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아르헨티나 정부가 명시한 제한 및 금지업종은 없어 국제투자법에 따른다. 따라서 투자 전 KOTRA를 통해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Zonas francas)

자유경제구역에서는 상업이 관습적인 관세제도에 종속되지 않아 수출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이다. 주요 목적은 비용 절감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무역 및 산업 수출 활동을 촉진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물류저장, 상업, 공업에 종사하며, 무기, 탄약 및 식물 및 동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전을 위협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아르헨티나 현행법상 23개 주와 4개 특별지역에 보세 지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티에라 델 푸에고의 경우는 주 전체가 특별관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라 플라타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항구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0km 떨어져 있는 입지를 활용해 물류 중심의 보세지역이 설정돼 있으며 활동이 활발하다. 이 외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라 팜파, 산 루이스, 멘도사 등의 주요 지역에 보세지역이 설정돼 있다.

2018년 11월 기준, 아르헨티나에는 티에라 델 푸에고 외에, 12개 주에 14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각각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라 플라타, 바이아 불란카), 코르도바 주(코르도바), 추붓 주(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라 팜파 주(헤네랄 피코), 멘도사 주(루한 데 쿠요), 미시오네스 주(푸에르토 이과수), 살타 주(살타), 산 루이스 주(후스토 다라트), 두꾸만 주(크루스 알타), 엔트레 리오스 주(콘셉시온 델 우루과이), 산타페 주(비샤 콘스티투스온) 그리고 산타크루스 주(칼레타 올리바, 리오 가세고스)에 설치돼 있다.

관세법 제590조에 규정된 범죄적 성격을 포함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역을 출입 및 통과하는 물품들은 아르헨티나 일반 세관 영역에 적용되는 세금, 관습 및 재정 규정에서 제외되어 적용된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사용자는 산업 진흥 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티에라 델 푸에고(TDF: Tierra del Fuego) 지역은 남미공동시장협약에 따라 2023년까지 무관세로 상품 수출입이 가능한 특별관세 지역이다. 1972년 제정된 법 1964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국세가 감면된다.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 면제
 - 소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 시 관련 세금 환급

Tierra del Fuego 입주기업의 경우 지방세인 영업세만 부담한다. 입주 가능 품목은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과 아르헨티나 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다. 입주는 프로젝트별로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같은 주의 우수아이아, 리오그란데 등의 도시는 보세지역 및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다.

2) 입지 선택 방법

- 아르헨티나 투자개발공사(ADI) 및 주 정부 사전 접촉

공장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센티브는 없으나, 최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르헨티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유희시설의 활용과 고용 창조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초기단계에 경제부 산하의 아르헨티나 투자개발청(ProsperAr: Agencia de Desarrollo de Inversiones)과 접촉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3)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공단 입주 우선 검토

2015년 기준 한국의 경우 아르헨티나로의 투자 진출이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 주요 투자는 대기업의 전자제품을 위한 현지판매 /영업 법인과 정부의 수입규제 통과를 위한 현지 조립공장으로서의 아웃소싱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활발하기 때문에 동 단지 내에 입수도 검토해볼 수 있다. 산업공단 입주를 통해 공장을 유치, 운영하면 여러 세금(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 TIERRA DEL FUEGO FREE INDUSTRIAL ZONE

규모	500ha
----	-------

위치	Sarmiento 745, Tierra del fuego, Ushuaia
임차료	토지가 주 정부 소유로 주 정부와 토지 매입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011) 4322 7324 - 홈페이지: https://www4.tierradelfuego.gov.ar/
비고	대우전자 입주

◦ ZONA FRANCA LA PLATA

규모	70ha
위치	Juan Domingo Peron e Hipolito Yrigoyen S/N
임차료	1.8달러/m2/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221) 468-0000 - 이메일: info@bazflp.com - 홈페이지: http://www.bazflp.com/
비고	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 중 유일하게 소득세 면제

◦ PARQUE INDUSTRIAL PILAR

규모	920ha
위치	calle 9 y 10 Parque Industrial Pilar, Ruta 8 Km 60, Pilar, Buenos Aires
임차료	12달러/m2/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0230) 449-6801 - 이메일: info@pip.org.ar - 홈페이지: https://www.parqueindustrialpilar.org.ar/
비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서 60km 거리로 입지 양호

◦ PARQUE INDUSTRIAL SAN FRANCISCO

규모	184ha
위치	Santiago Pampiglione N4891, San Francisco , Cordoba
임차료	0.7~1.0달러/m3/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035) 6442 -1803 - 이메일: info@parqueindustrialsanfrancisco.com - 홈페이지: http://www.parqueindustrialsanfrancisco.com/
비고	자동차 산업 위주

<자료원 : AFIP,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 면적: 203km²
- 인구: 166만
- 주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특별자치구
- 주요 기관: 주요 공공 기관 및 대학 밀집지역
- 주요 산업: 농작물: 대두, 밀, 해바라기, 땅콩 및 농업기계. 자동차, IT 및 기타 서비스 산업
- 비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주에 인구의 1/3이 밀집해 있어 상권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부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 네우켄(Neuquen)

- 면적: 63 km²
- 인구: 62만 명
- 주도: 바카 무에르타
- 주요 기관: Pan American Energy 등 주요 석유회사
- 주요 산업: 셰일가스 매장지가 위치한 네우켄 주는 석유회사나 에너지업종이 밀집돼 있다. 그 밖에도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높아 어류와 과일의 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 비고: 아르헨티나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새로이 진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법령 제26,190호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와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코르도바(Cordoba)

- 면적: 222.4 km²
- 인구: 139만 명
- 주도: 코르도바 시
- 주요 기관: Intel, Fiat, BMW
- 주요 산업: 자동차, IT 업종의 연구소
- 비고: 코르도바 주에 밀집해 있고, IT 업종의 경우도 인텔 등 다국적 기업은 코르도바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이 지역은 광활한 목초 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낙농기업의 선호지역이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9,821.66	5,065.34	11,758.99	3,260.16	11,857.0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889.97	1,920.54	875.23	1,786.53	1,167.74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2	0	296	1	275
2016	4	0	881	2	181
2017	4	2	893	5	1,093
2018	3	1	299,380	2	3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275	1	275
N/A	1	0	21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4	1	4
건설업	1	0	500	0	0
도매 및 소매업	1	0	177	1	177
운수 및 창고업	1	0	2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4	1	893	4	893
운수 및 창고업	0	1	0	1	2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	0	299,000	0	0
제조업	1	1	300	2	300
도매 및 소매업	1	0	8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 S.A.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주식회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휴대폰, 통신장비, 생활가전 등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 Electronics Argentina S.A.

진출년도	2000
진출형태	주식회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휴대폰, 통신장비, 생활가전 등
모기업명	LG전자

◦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Suc. Bs. As.

진출년도	1999
진출형태	지점

업종	농림/ 수산업/ 임업
취급분야	오징어 조업
모기업명	(주)대우인터내셔널

◦ HANSUNG AR S.A.

진출년도	1985
진출형태	주식회사
업종	운송 및 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업
모기업명	(주)한성기업

◦ CERAGEM ARGENTINA S.A.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주식회사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온열치료기, 마사지 기구
모기업명	(주)세라젬

◦ Nuga Best S.A.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주식회사
업종	판매업
취급분야	의료기기
모기업명	(주)누가의료기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아르헨티나의 기업 설립 관련법은 기업법(Ley General de Sociedades)인 법률 제19550호로, 기업 설립 시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유한책임회사(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S.C.: Sociedad de Comandita), 개인기업, 지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외국 기업 투자 시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큰 차이는 없으나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설립절차 면에서는 유한회사가 용이하며, 대외신용도 제고 및 현지 금융조달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유한회사는 주로 인척,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내국 기업에 대해 100% 주식 취득도 가능하므로 단독, 합자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 영업할 수 있다. 영업형태는 목적과 투자자본금,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세금도 다양하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 다른 법인, 도매상 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 큰 차이점은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유한회사의 공동출자자들은 공정증서에서 회사의 정관에 서명 시 출자하기로 돼 있는 자본에 책임을 제한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기본 자본금이 적고 설립이 주식회사보다는 간편하고, 이후 정부의 제재도 덜한 관계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할 때 설립하기 유용하다. 최근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현 정부는 법인설립에 있어 좀 더 간편해진 절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법인청(Inspeccin General de Justicia: IGJ)에登記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상거래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등록되는 즉시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지사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이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도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공공상거래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지사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시 본사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제3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은 법인대표 명의로 이뤄져야 하며, 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지사는 아르헨티나 회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계장부도 본사와 별도로 작성해 필요 시 세무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지사는 본사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활용 또는 행할 수 있으나, 지사는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 운영에 관한 최종책임은 본사에 있다. 그러나 본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사는 공공상거래소(RPC)에서 부여하는 권한, 의무 및 감시를 함께 갖는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며,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 회사법에 명시돼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법인청(Inspeccin General de Justicia: IGJ)에登記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세자 번호(CUIT)를 발급받으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통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나타내며, 주주들은 이사를 선출해 사업과 업무를 맡긴다.

최소 2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주주는 납입자본금 내에서 책임을 진다. 주주는 국적 및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주의 다수는 아르헨티나에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은 10만 페소이며 내외적으로 감사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회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주주 총회는 결산 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소집해,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증자와 감자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사관리를 책임지고 이사는 연례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수는 제한이 없다(1명도 가능). 단, 주주식이 상장돼 공공소유인 경우 또는 자본금이 1천만 페소를 넘을 경우 최소 3명 이상 선임돼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018년 4월 4일부터 이러한 주식회사는 긴급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면, 24시간 내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정이 되었다.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시 등록 24시간후 사업자 코드(CUIT)가 발급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많이 이용되는 기업형태이며,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특징은 2명 이상 50명 이하의 회원(주주)들로 참여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자본금은 각 회원이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며, 각 회원의 지분에 맞게 책임 및 권한이 주어진다.

회원들은 지분을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최소 의사결정 기구는 사주 총회이며, 회사 경영은 회원 대표가 맡는다. 대표는 1인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사회가 없는 만큼 모든 결정이 사주 총회에서 직접 내려지고, 즉시 대표가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관련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약 1,100달러가 적당하다고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 간 계약, 자본출자 조항, 관리책임, 출자자 변경, 내부 감사요건, 청산절차 등을 규정한 약관을 준비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나, 규제 변경 시 출자사원의 다수 동의(또는 만장일치)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특히 자본금이 7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기간이 짧고 정부의 규제나 관리가 약한 편이다.

출자사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다. 출자사원은 국적 및 거주지 불문, 외국계 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

2017년 7월 12일부터 유한책임회사는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다.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시 등록 24시간 후 사업자 코드(CUIT)가 발급된다.

개인사업자

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사업가들이 이 형태를 선택한다. 개인 이름으로 연방정부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며, 당일에 완결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아르헨티나 법이 인정하는 만 21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단기 영주권을 소유해야 한다. 사전에 거주 소재지 확인증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발급받은 후 이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나면 납세자 고유번호(CUIT)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영업활동은 물론 일반 시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납세자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관할 시청에 영업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영업거래 규모에 따라 매월 납세금인 영업세가 정해지며, 관할기관은 시청 세무서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 전부를 갖는 동시에, 영업행위로 빚어지는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는 대외적으로 개인의 본명 또는 다른 가명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단순주식회사

사업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기업설립의 형태이다. 법무 및 인권 산하 법인청(IGJ)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특별시에 설립되는 회사들을 책임하고 있다. SAS는 기존 설립형태보다 비교적 쉽고 간편하며, 디지털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한 개인 회사이다.

기존 회사 설립 형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등록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설립 시 필요한 자본은 최저임금의 두 배로 또한 비교적 낮다. 또한, 24시간 안에 등록이 가능하다.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디지털화되어있으며 모든 서류는 TAD 디지털 공인 인증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을 통해 설립될 수 있으며, IGJ 산하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 공증인을 통해 설립될 시 공증인은 TAD의 라이선스를 가진 사용자여야 한다.

단순 동업회사

실존회사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초한 조합이다. 실존 회사는 미국의 PARTNERSHIP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본 영업체는 자본을 출자하는 회원 그리고 기술 및 지식을 출자하는 회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의 관계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동업 합의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업자 간의 서면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된다. 각 동업자는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지며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동업체의 존속은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동업은 동업자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서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동업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따른다.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양한 이유로 (파트너가 무능력자로 판결을 받거나 동업합의에 따라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최병수 합동법률사무소

전화번호	(+54 011) 4322-0420
주소	Suipacha 414 5층
이메일	choilorenzo@yahoo.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대표 최병수

◦ 임정신 종합법률 회계사무소

전화번호	(+54 011) 4611-6554
주소	Moron 3145, 3, 4층
이메일	lvanna_yin@hot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대표 임정신

○ 이승준 회계사

전화번호	(+54 011) 6718-7070
주소	Moron 3392, 3층 A호
이메일	jklee@estudiojk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대표 이승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투자법인 철수

민법 48조에 따르면 법인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해체는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체는 법에 따라 구성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이나 각 조항의 악용·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자사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체는 필요 사항이며 공익을 위하는 길이다.
- 더 이상의 제품 취급이 불가능할 때 법인 해체를 한다.

법인의 해체 결정 또는 민법 45조에 의거한 관련 기관의 개입으로 판사는 일시적인 영업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법인 해체 유형

○ 법인 해체

민법 48조 1항. 이 경우에 협회 혹은 재단에 위 법을 적용한다. 협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 재단의 경우 정관에 해체와 폐업에 대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체를 하려면 임원 수의 최소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인 해체는 법인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임무를 시행할 수 없을 때
-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다했을 때
- 사회기관에 의해 법인의 업무를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을 때
- 계속되는 마이너스 실적으로 인해 법인의 자본금을 잃어갈 때
- 법정준수 최소 자본금보다 법인의 자본금이 낮을 때
-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비투표 주식의 명목 가치가 법인의 자본금의 절반을 초과하고 2년 내에 그 비율이 회복되기 어려울 때
- 이 밖에 모든 법에 규정된 다른 원인

한 법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체를 원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 소유권 양도: 법인 판매
- 회사의 청산: 활동 중단, 채권자 및 주주에게 지불 그리고 회사의 폐쇄
- 채권자 회의: 채권자를 상대할 수 없는 경우 법은 강제로 채권자를 소집할 수 있거나 채무자를 통해 할 수 있다.

○ 법인 청산

한 법인의 해체 신청으로 인해 법인의 청산 기간이 시작된다. 이러한 청산 기간 동안 법인의 이름에는 “법인 청산 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법인의 법정 성격을 상실시킨다.

청산 기간의 개시와 함께 경영자는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표권한은 소멸되어 청산인에게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청산 작업이 완료되면 청산인은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배포해야 하고, 자본금을 받은 주주는 자본금에 대한 1%인 이전에 관한 세금을 내야 비로소 회사의 청산이 완료된다.

3) 해산 및 청산인 임명 시 필요 서류

-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49조 2항에 의거한 공증인(공정 증서가 사용된 경우) 또는 변호사(개인 증서가 사용된 경우)의 전문 사전 심사가 요구된다.
- 신청서: 웹사이트(<https://www2.jus.gov.ar/igj-formularios/Default.aspx>)에서 'Disolución y nombramiento de liquidador(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선택한다.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모든 구성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제외하고, 인증 및 감정 절차 준수 규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109조에 따라, 청산인(들) 자격 수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심사 전문가에 의해 필요한 기술사항
 - a) 기업 해산 및 청산인 임명이 결정된 공동 출자자 회의의 정원 및 과반수
 - b) 회의를 소집한 이사회 의원의 정원 및 과반수
 - c) 유한회사의 경우, 만장일치가 아닐 때 법률 제19550호 159조에 따라 기업의 법인 계약서에 명기된 바에 의거해 경영자들이 공동 출자자 회의를 소집했는지 여부
 - d) 해산의 사유에 대해 표명하고, 해산의 사유에 의거해 정원 및 과반수를 기술하며, 해산 승인은 유효 규정에 따름.
 - e) 청산인(들) 임명에 대한 기술(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실 거주지 및 특별 거주지, 국적, 사업자번호(CUIT))
 - f) 청산인 직무 수락
 - g) 청산인(들)의 특별 거주지 고정
 - h) 직무 수락 또는 임명된 청산인(들)의 특별 거주지 제정이 신청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심사 전문인은 임명자의 신원과 직무 수락 및 특별 거주지 제정이 증명됐다는 것을 밝히는 법적 신고서(Declaración Jurada)를 작성해야 함.
 - i) 자연인이 아닌 공동 출자자가 등록된 경우,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법인, 관할, 영리 기업에의 구성 및 참여 능력에 관한 정보
- 신탁 계약법 제24441호 시행령 제02/2006호
 - 관련 번호
- 외국기업: 마지막 연례 보고서 발표일, 마지막 연례 보고서 승인일, 마지막 대차대조표 발표일(법 제19550호 118조)
 - 공동 재산 가치(주식회사의 경우에만 해당,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436조)
 - 주식이 유상 또는 무상 취득됐는지 기술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437조)
- 공정 증서 또는 개인 증서 원본의 최초 증명(법인청 결정문 제7/05호 부속서 A 36조 1항 및 2항에 의거)
 - 회사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선언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회의 의사록과 그 참석 기록 또는 공동 출자자 회의록 또는 기업 결정문
- 이해관계자, 법적 대표자 및 심사 전문인의 서명이 된 서류들(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음)과 함께, 다음 서류들의 증명 요구
 - 회의 소집 공지: 주식회사의 경우, 관보에 게재한 소집 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법률 제19550호 10조 b항 및 98조에 따라, 기업의 해산 결정 및 청산인 개별화, 특별 거주지가 제정된 날짜를 포함한 관보 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76조 및 77조에 의거, 사전 보증 수행을 증명한다.
 -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184조에 따라, 규칙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기업의 해산 신청은 현 절차보다 이전에 또는 동시에 사전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시, 국가 공식게시판(Boletín Oficial)에 법인이 청산됨을 공표한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39.3아르헨티나 페소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763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49
비고	월 최저임금(Salario Minimo, Vital y Mvil): 11,300아르헨티나 페소(287.5달러)				

<자료원 : 아르헨티나 노동부, CP Jorge Vega, SECEIC(생산노동조합)>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특별한 법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신계약’으로 간주한다. 수습 기간은 3개월(90일)이고, 삼자협약(정부, 노동조합, 상인조합)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구두로도 채용조건 합의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구 채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돼 영구 채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정기 근로조건의 계약은 계절적 또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한해 체결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연간 6개월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계약 시 신원명세서, 건강진단서 등 일반적인 내용은 보통 생략하지만 확실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든 노사관계가 우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시간

- 일반 근무: 주요 근로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최대 9시간, 1주 40시간/최대 45시간
- 야간 근무: 오후 교대(Swing Shift)를 제외한 야간근무(9 pm~6 am)는 1일 7시간 초과 금지
- 위험직종의 경우 최대 1일 6시간, 1주 36시간 초과 불가
- 초과근무 수당
 - 주중 초과근무(월요일에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기본수당의 50%
 - 주말(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기본수당의 100% 추가
 - 초과근무는 하루 3시간 이하, 1달 30시간 또는 1년 200시간 이하로 제한

휴가

1) 정기휴가(연간 Calendar Day 기준)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에 한 번씩 정기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휴가일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며, 정기휴가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 6개월 미만: 근무일 20일마다 1일로 산정(약 한 달에 1일)

- 6개월~근속 5년: 14일
- 5년~10년: 21일
- 10년~20년: 28일
- 20년 이상: 35일

법정휴가의 경우 아르헨티나 노동법에 따라 2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보통은 회사 고용회계사나 변호사가 산정해준다.

- 법정 휴가급여 산정식: (월 급여 x (30일-휴가일)/30일) + (휴가일 x 월 급여 x 120%)

정기휴가 기간은 10월 1일과 4월 30일 사이에 주어지며, 고용주에 의해 휴가일이 결정될 경우 노동자에게 4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비정기휴가

- 출산 휴가: 90일(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로 이후 무급으로 1년의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휴가의 경우 노동자와 회사가 협의 가능하나 일수는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최소 출산예정일 30일 전에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
(출산휴가의 경우 월급은 ANSES에서 지급)

- 병가: 3~6개월. 병가의 심각성에 따라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담당 의사가 결정한다.
- 기복 휴가: 배우자, 부모, 자식: 3일 / 형제자매: 1일
- 법정 결혼 휴가: 10일 연속휴가. 정기휴가와 합칠 수 있다.
- 기타 휴가: 중등 또는 대학 교육기관의 시험(시험당 2일, 연간 최대 10일) / 헌혈(연간 최대 2일) / 이사(2일)

해고

아르헨티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중 하나로,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국가 중 하나다. 정부 측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

모든 근로자는 2004년 4월 발효된 노동법 제25877호에 의거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횡령, 폭력 또는 심각한 범법행위 등에 연루되지 않은 한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계약의 불행을 정당화하는 법적인 사실이나 근로자의 위반이 없으나 고용주의 임의 결정에 의한 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해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우편을 통해서 해야 하며, 해고 사전통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해야 한다.

○ 해고 통지 기간

- 수습 기간의 근로자: 15일 전 통지
- 5년 미만 근속 근로자: 1개월 전 통지
- 5년 이상 근속 근로자: 2개월 전 통지

해고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 물색을 위해 1일당 2시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 휴가를 축적해 1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노동법 245조)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의 급여 보상금(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1년 일한 것으로 간주)
- 5년 근무한 근로자 기준, 5개월의 월급이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 사전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사전 통지하지 않았을 시, 1개월분의 급여 지급)
- 미지급 상여금, 휴가보상금
- 급여보상금의 기준은 근무 마지막 해의 제일 높은 급여다.

업체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상기 비용의 50%로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직원해고 시 크고 작은 소송 제기로 해고가 상당히 어렵다. 소송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측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해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근로자 해고 시 해고 보상금 지급 후 추가적인 소송 및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를 방문해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노동부
 -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홈페이지: www.trabajo.gov.ar
 - 전화: 0800-410-666-4100
 - 주소: Av Leandro N. Alem 650, Capital Federal, Argentina

퇴직금

아르헨티나의 경우 퇴직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 근로자의 정년퇴직: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 및 근무 30년을 완료했으면 퇴직을 할 자격이 있으며, 회사로부터는 퇴직금을 받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사임: 근로자가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 후 복직하지 않을 시 노동법 245조의 25%를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사망: 노동법 245조의 50%
- 근로자의 무능력 또는 장애로 인한 계약해지: 근로자가 장애를 얻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그의 해고를 원할 시 노동법 245조를 지불한다. 반면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노동법 245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퇴직한다.
 - 노동법 245조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의 급여 보상금(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1년 일한 것으로 간주 / 5년 근무한 근로자 기준, 5개월의 월급이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 미지급 상여금, 휴가보상금: 급여 보상금의 기준은 근무 마지막 해의 제일 높은 급여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아르헨티나의 사회 보장세율은 고용주 23%, 근로자 17%며, 고용주가 근로자 부담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은 6%며 근로자 부담은 3%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회보장세 중 의료보험 부담액(9%)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민간 의료보험 선택이 가능하며, 민간 의료보험이 월급의 9% 이상일 경우 차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고용보험

최근 3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퇴직자는 국가가 배상하는 고용보험금을 탈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정식채용 및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였으면 고용보험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실직 3개월 안에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수당의 권리를 잃는다. 고용주가 지불하며, 약 0.89~1.11% 정도다.

산재보험

고용주가 지불하며 근로환경에 따라 지불 비용이 달라진다. 최저 0.5%~최대 5%에 달하며, 평균 1.5%다.

국민연금

아르헨티나에서는 30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65세에 달한 남성 근로자와 60세에 달한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해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련세는 고용주 11.7~14.88%, 근로자 11%다.

가족수당

피고용인이 내는 금액은 없으며, 고용인이 내는 관련 세금은 아르헨티나 사회보장기관 ANSES(Administracin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의 기금으로 쓰인다. 아르헨티나 사회보장기관에서 지불하는 대표적인 가족수당으로는 임신 및 출산, 결혼, 입양 등이 있으며 각 가족수마다 수당 지급이 되고 있다. 가족수당세는 고용주 부담으로 7.5%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국세(國稅))

- 세율: 35.0%
- 과세대상: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기금, 외국 법인 및 지사 등 아르헨티나 소재 모든 법인
- 과세소득: 법인이 거주자의 경우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의 경우 아르헨티나 발생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형태로 징수한다.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는 아르헨티나 국적자(귀화 외국인 포함), 영주권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된 법인, 회사, 조합, 재단 등이 포함된다.
- 신고 시기: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납부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해 예납이 이루어지며 신고 시기에 정산금액이 결정된다.
- 신고방법: 아르헨티나 국세청에 세무조정이 완료된 신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통상적으로 역년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 이중과세방지 협정: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15개 국가로 해외에서 유사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부과한 세금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비협정 국가의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세 초과분에 대한 35%, 지급이자 15.05%, 저작권 로열티는 12.5%, 기술 지원 로열티는 26.40%를 원천징수한다. 한국과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

개인소득세

(국세(國稅))

- 세율: 9~35%(영주권자), 24.5%(비 영주권자),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과세대상: 아르헨티나 소재 모든 개인
- 과세소득: 거주자는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발생소득에 대해 부과
-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을 통합해 최고 35%를 부과한다. 소득세 관련 누진세율의 경우, 소득세 과세 불가액(Minimo no Imponible)을 정해 동 과세 불가액보다 연 수입이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소득세 과세 불가액은 2018년 12월 기준 미혼남녀는 연 수입 388,123.88페소(약 10,000달러),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수입 451,046.06페소(약 11,870달러), 결혼했으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연 수입 513,431,26 페소(약 13,511달러)가 소득세 과세 불가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국세(國稅))

- 부가세의 경우 일반 업체의 경우 매달 부과되며, 제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업체가 지불한다.
- 일반 세율: 21.0%
- 통신, 가스, 전기 및 상하수도(공공서비스): 27.0%
- 자본재,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신문, 잡지, 의료, 특정 요건을 갖춘 이자 및 수수료는 10.5%를 적용한다.
- 수출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출용 원자재는 부가세가 환급 가능하다.

특별소비세

(국세(國稅))

특정 상품 소비에 대한 부과세금으로 품목별로 차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담당하며, 주로 담배, 주류 또는 럭셔리

리 제품에 부과된다.

금융거래세

(국세(國稅))

- 세율: 0.6% (신용거래), 1.2% (당좌계좌거래)
- 2001년 4월 법률 제25413 및 제25414호에 의거, 신설된 세금으로 급여구좌 및 대출구좌 금융거래 시는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금융거래세는 IMF 및 아르헨티나 산업계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단기간 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산거래세

(국세(國稅))

- 세율: 1.5%
- 재산권 이전에 따른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성격은 아니다.

추정 최저소득세

(국세(國稅))

- 세율: 연간 1.0%
- 세금 대상: 아르헨티나 국내외에 있는 모든 고정 자산
- 관세 특혜지역인 티에라 델 푸에고에 위치한 자산, 광업투자에 따른 자산 등 별도로 법이 정하는 경우는 이 세금이 면제된다.
- 2019년 폐지 예정

개인재산세

(국세(國稅))

- 세율: 0.50~1.25% (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
-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주자는 해외 재산 포함,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주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된다.
- 재산세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재산을 포괄해 부과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보유재산만을 기초로 한다. 외국인이 근로의 목적으로 5년 이하 거주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내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305,000페소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과율은 0.5%에서 1.25%까지이다. 해외에서 유사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부과한 세금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세

(주세(州稅))

- 모든 상업활동에 부가되는 세금이며, 상품의 특성 및 상업자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보통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한다.
- 세율: 1.5~5%
- 주정부 조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차 산업(농목축, 어업, 광업) 1.0%, 2차 산업(제조업, 건축업) 1.5%, 3차 산업(서비스, 유통)에는 3.0%가 부과된다.

인지세

(주세(州稅))

- 세율: 1.0~2.5%
- 거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나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가 부과된다. 한 예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세금은 부동산 양도(2.5%), 상업 목적(0.5%)에 대한 임대 및 전대에 부과된다.

부동산세

(주세(州稅))

- 정부는 각 부동산 지주들에게 매년 부동산세를 청구한다.
- 세율은 부동산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주정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다.

시세(市稅)

각 도시청은 산업 안전, 공공 위생, 조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외환관리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e Argentina)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해 통화공급을 조절해 화폐가치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통제를 시작한 2011년부터 현지의 달러 구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식 환율과는 별개로 암시장환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현지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추락했고, 비공식 환율과 공식 환율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아르헨티나는 크리스티나 2기부터 외환규제를 강화해 수입대금송금에 대한 규제 및 개개인의 달러 구매까지 규제를 두어, 달러 수요만 증가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12월 10일 마크리 신정부 출범 후 수출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경제개혁으로 외환규제를 철폐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기업의 환전, 기업의 배당금과 수입대금 등의 외환송금을 자율화하는 등 다양한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로 페소는 30% 이상 평가절하됐다. 현 정부 취임 이후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로 꾸준히 페소화 평가절하가 지속되었으나, 2015년 12월 이후 2년 반동안 100%가 넘는 누적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페소화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과대평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새 정부 취임 이후 불안정한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물가안정의 방법 중 하나로 본원통화율을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 20.7%로 2019년 6월까지 동결된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외화를 조달 받는 대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금융간섭(외환 관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상한 44페소 그리고 하한 34페소로 밴드환율을 설정, 환율이 이를 벗어날 시 달러를 매입, 매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외환 규제

외환 송금 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했던 사전허가제는 폐지되어 이전 정부보다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송금 시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 개인 자금(선물, 가족소비, etc.)
- 국외 거주인의 연금 또는 장학금, 기부금 등
- 개인 여행 관광
- 국외 거주목적 소비
- 외국 투자
- 수입
- 그 밖의 다른 이유는 당국의 중앙은행과 협의 가능

외화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령인의 개인정보 및 수령인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송금인은 아르헨티나 소지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송금 전 해당 은행을 통해 송금수수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전, 송금 금액과 수수료는 계좌에 미리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외화를 예치 받기 위해서도 아르헨티나 소재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송금받은 외화는 외화 그대로 예치되며, 예치 수수료는 페소 계좌에서 지불된다. 평균 자금의 계좌이체는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이루어지나, 예금자와 송금자의 정보가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할 시 자금을 조달받는 데 시간이 더욱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당국의 외국인 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내국인 외국투자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아르헨티나는 인구 약 4,400만 명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이은 중남미 4대 시장이고, 2018년 아르헨티나 GDP는 4,750억 달러로 브라질, 멕시코를 이어 중남미 세 번째 경제 대국이며, 1인당 GDP 구매력(PPP) 기준 20,610달러로 칠레에 이어 2위 소비시장이다.

하지만 2018년도 실업률이 9.6%로 증가, 작년 7.2%에 비해 2%나 증가하였고, 높은 금리와 불안정한 외환시장,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긴축정책을 통해 경기가 회복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 중이나 폐소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 인상 등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내수시장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빈부 격차가 큰 편으로 지니계수가 0.44에 달한다. 아르헨티나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9월 기준 월급 평균은 31,898페소이나 중앙값은 25,425페소로, 현지 빈부 격차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아르헨티나 노동부 >

소비 성향

1) 가격에 민감

디폴트 및 평가절하로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단순 가격을 비교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에는 품질(기능)의 차별성을 강조한 설득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제품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의 아시아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며, 일본과 미국 제품의 가격과 유사하다는 것에 놀라므로, 구매 결정 시 대부분 더 경쟁이 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한다. 바이어에 따라서는 가격보다는 브랜드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바이어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

2) 바이어 특성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들이 많아 신규 거래 발굴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해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 어렵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고 있어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다. 현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로 아시아계 제품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아직까지 아시아계 제품은 중국제라는 마인드가 지배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은 무료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첫 오더는 테스트용으로 수량이 적은 경향이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3) 아르헨티나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서비스,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인터넷 구매에 대한 만족도와 신용이 상승하며, E-commerce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5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7.6%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총 전자상거래 중 28%가 항공권이며, IT 제품, 가구 등의 순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 93%, C2C 7%로 구성돼 B2C 형태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초고속 통신망 구

축사업을 통해 앞으로 아르헨티나 인터넷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문화의 새로운 주인공: 여성 소비자

전체 노동인구 중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 소비자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 과거에 비해 여성 취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 가정의 소비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가 많아졌다. 아르헨티나 내 총 휴대폰 판매의 35%가 여성 고객에 의한 것이고, 여성 고객들의 세력은 기존 업종을 떠나 자동차, 스포츠, IT까지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201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부터 여성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여성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인구도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의 존재는 대부분 알지만, 해당 기업이 한국 기업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적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아시아계 제품'이라는 편견이 있어 중국제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제의 품질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재 급격한 폐소화 평가절하로 인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업체에게는 가격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어 한국 제품의 수입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현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 인하 방안 또는 이에 준하는 사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현지 또는 인근국 생산, 철저한 A/S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류 K-Culture, K-pop, K-Beauty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 관심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LCD/플라즈마 TV 시장에서 연이은 판매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바이어 특성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부분을 강조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18년도 겪은 급격한 평가절하로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저가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의 단순 비교 시,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과의 우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순 가격을 비교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에는 품질(기능)의 차별성을 강조한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들이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해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 어렵다. 샘플을 받아 본 바이어는 수차례에 걸쳐 테스트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품에 대해 신뢰를 갖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보편적인 성향이다.

첫 거래에서 대량으로 오더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잠재시장을 잃을 수 있는 지름길이며,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 거래를 이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수입상은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데, 이는 시장조사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기 때문이다. 에이전트십 부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독점으로 이해가 되며, 구두로도 쉽게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선정 시 독점권한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아르헨티나 바이어 접촉 가이드

거래 제의 시 우선 이메일로 가볍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우송하기 이전에 우선 e-메일 또는 팩스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히고, 회사·제품·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이어와 몇 차례의 교신 후 상호인지도 및 거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제고됐을 때에 회사 소개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을 비롯해 가능하면 샘플을 포함한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다.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홈페이지, e-Book 등의 형태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선호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3) 수입 관행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많으며, 관행상 초기에는 T/T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평가절하를 겪으며 T/T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바이어도 존재한다. 대부분 T/T로 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D/A, D/P를 요구한다. L/C 거래는 개설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해 기피한다.

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T/T 거래로 100% 지급 후 선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지 관행상 'Contract Sheet'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Proforma Invoice로 대체할 수 있다. 이

Proforma Invoice에 바이어의 Counter Sign을 받아서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Claim 발생 시 해결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반 선적서류 작성은 바이어가 계약 시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관 등에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지체 비용이 커진다. 더욱이 일부 선금 송금 후, 선적하고 잔금은 선박 도착 직전에 내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서류가 잘못되면 문제가 크다.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현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국내 모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 밸류를 해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것이 현지 메이커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문제 발생 시 현지 바이어(특히 유대인 경우)는 자사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업체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진다. 특히 바이어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정보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공하도록 한다. 바이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요청한 자료를 추후 문제 발생 시 바이어에게 유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5) 검토 결과 문의는 일주일 뒤에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 예상 일에서 대략 일주일일이 지난 뒤에는 자료의 수령 여부 확인과 아울러 검토 결과를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자료 송부 후 곧바로 문의하게 되면 거래제의 업체 쪽에서 너무 독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 결과를 문의할 때에 먼저 팩스 또는 e-메일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과 비즈니스 미팅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사전에 약속하고 하루나 이틀 전 따로 확인 전화를 하여 약속을 확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변동사항을 확인하거나 자세한 약속장소 및 시간을 정한다.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1년 정도의 출장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레터로 방문 신청을 하고 방문 며칠 전에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1, 2월과 크리스마스 전후는 휴가 기간이고, 7월 중순은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다른 중남미 사람들에 비해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2) 인사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제3자가 소개해주는 것을 선호하며, 모임에서는 주최자가 소개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이 직접 진행한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중요시하므로, '무엇을 말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소개했는지를 판단한다.

초면에 하는 인사는 정중해야 하며, 연장자 또는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인사해야 한다. 악수는 눈을 맞추고 환하게 웃으면서 해야 한다. 눈을 계속 맞추는 것은 호감의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사는 악수지만 머리를 살짝 숙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정확히 눈을 바라보며 신뢰감을 주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현지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인 경우 가볍게 포옹하고 오른쪽 볼을 맞대는 '운 베시토(un besito)' 인사법이 일반적이다. 초면인 경우 악수를 교환해도 무난하다. 친해지면 '운 베시토'도 시도해볼 수 있다. 당신의 외모에 대해 약간의 농담을 하는 것은 공격적 의미보다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다.

3) 명함과 호칭

초면에는 당신(우스뎃: Uste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주최 측에서 먼저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이름으로 호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이름으로 남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소개를 들을 때 스페인어로 된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반복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비즈니스 면담의 경우 상대방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를 성(姓) 앞에 직위를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직위는 회사에 따라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레지덴테(Presidente)는 사장, 디렉토르 헤네랄(Directo rGeneral)은 사장 또는 이사, 디렉토르(Director)는 이사 또는 부장, 헤렌테(Gerente)는 과장 정도이다. 남성에게 세뇨르(Se ñor), 기혼여성에게 세뇨라(Se ñora), 미혼여성에게 세뇨리따(Seorita)를 성(姓) 앞에 붙인다.

명함을 보면 성(姓) 앞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이름 앞에 학력을 붙이면 훌륭한 존칭이 된다. 박사는 독토르(Dr.: doctor), 석사는 리센시아도(Lic.: licenciado), 공학석사는 인헤니에로(Ing.: ingeniero)로 표기한다. (예: 리센시아도 로페스 licenciado Lopez)

물론 아주 친해지면 호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호칭을 부를 때 성명을 보고 성(姓)과 이름(名)을 잘 구분해야 한다.

명함은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름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쪽으로 명함을 건네야 한다. 가능하다면 스페인어로 번역한 명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선물

아르헨티나인은 비즈니스 상담에서 초면에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단, 정부 인사 방문의 경우 통상 선물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선물을 할 경우는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열쇠고리, 봉투 등 가벼운 선물이 좋다. 바이어 관리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고, 연말에는 주요 거래선에 와인, 종합 선물세트 등을 선물하면 좋다. 7월 20일은 ‘친구의 날’로, 이때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e-메일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면담을 신청한 쪽이나 방문을 하는 쪽에서 예의상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통 아르헨티나에서 흔한 물건인 가죽, 와인 등을 선물한다. 칼, 가위 등과 같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물건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입규제가 심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한국적인 선물(한지 명함 통, 한지 보석함 등)의 반응이 좋으며, 유명 메이커인 위스키, 프랑스산 샴페인, 수입 초콜릿이나 꽃도 적절하다. 술에 대한 수입관세가 매우 높으므로 수입 술 한 병은 매우 좋은 선물로 간주된다. 선물은 받는 즉시 앞에서 열어보고 감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행이다.

5) 식사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매운 음식, 생선 류(회 포함), 국물 있는 음식 등은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인의 주식은 쇠고기로 생선은 부활절 등에 제한적으로 먹는다. 스테이크,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음식이 무난하고 식사 시 포도주는 한국의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주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이나 저녁식사가 일반적이며 대체로 집으로 초대를 하지는 않는다. 주로 오후 8~10시에 저녁식사 약속을 잡고 주말에는 더욱 늦게 약속을 잡는다. 오후 4~6시 사이에는 커피와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다. 오찬은 오직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만 흔하다.

유의해야 할 식사 예절은 다음과 같다.

- 모임의 주최자가 자리를 지정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주최자가 먹으라고 권할 때까지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종업원을 부를 시에는 손가락을 세우며 ‘mozo(모소)’라고 부르며 된다.
- 식사 시 입으로 소리를 내며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포크는 왼손에, 나이프는 오른손에 침을 원칙으로 하고, 아르헨티나는 대부분 고기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기를 자를 때 접시를 칼

로 그어 불쾌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와인을 왼쪽으로 따르는 것은 큰 실례이며, 식사는 즐기는 것이라 여겨 식사 중에는 사업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아르헨티나 측에서 먼저 주제를 꺼내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는 와인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문화가 있는 만큼, 와인에 관해서는 많은 금기와 예절이 있다. 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와인 따르기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르헨티나의 평균 식사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며, 식사를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다. 따라서 식사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배를 불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것 또한 식사의 목적이다. 음식이나 와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즐기는 것이다. 비즈니스 만찬에서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가벼운 식담 속에 협상과 거래의 메시지를 은근히 깔아 주고 받는다. 음식에 집중하기 보다는,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인을 초대할 때는 의자가 있는 식당이 좋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식당은 매우 불편해하며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 모임 주최측에서 아르헨티나 전통차인 마테차를 제공하는 경우 매우 쓴맛에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인에게 마테차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자 의식과 같다. 마테차의 경우, 하나의 빨대(Bombilla)를 여러 명이 나눠 마시는 방법이 통상적이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이기에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으나, 너무 강한 거절을 하기 보다는 '노 그라시아스(No gracias)'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르헨티나인들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만 마테차를 권하는 것이므로, 거부감이 심하게 들지 않는다면 같이 마시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6) 복장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여타 중남미에 비해 매너를 중시하므로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업계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평범한 의상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남성은 정장에 어두운 색깔의 타이를 착용하고, 여성은 짧은 바지보다는 여성복이나 블라우스를 입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기업인 중 상담 시 노타이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면 무난하다. 넥타이는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중간 색을 추천한다. 또한, 양복 착용 시 와이셔츠는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눈에 띄는 색이나 패턴이 들어간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복장뿐만 아니라 단정한 머리스타일과 정돈된 모습은 신뢰감을 높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향수의 경우, 너무 강하지 않은 은은한 향을 추천한다.

7) 기타 에티켓

회의 시 모든 참가자의 출석을 기다리고, 모두 모인 후 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는 모두에게 일대일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말할 때 손을 허리에 얹는 것은 피하고, 식탁이나 상자 등에 기대서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디랭귀지는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눈을 지속적으로 마주치도록 하고 말할 때는 손을 허리나 엉덩이에 두지 않아야 하며, 하품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바이어와 상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서 흔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한국의 출장업체가 바이어와 상담 시 고함을 지르고 돈 다발을 흔들면서 결제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어가 해당 행위를 인격 모욕적인 행위라고 무역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

8) 첫 대면에 자연스러운 주제의 이야기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축구, 날씨 등을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추켜세워주는 화법이 필요하다.

9) 역사적 • 문화적 금기사항, 불쾌감을 주는 언행

반(反) 영국 감정을 고려하자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대해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 국민적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영국을 긍정적 측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삼가고, 특히 포클랜드는 '말비나스(Malvinas)'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지도에는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KOTRA 지원을 통한 바이어 확보와 공격적인 시장 진출

디지털 방송 수신기(일명 Set Top Box)의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으로 시장 점유율과 이익의 폭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 이에 중소기업인 A사는 방송사 직납시장의 주요 타겟으로 인도, 동유럽・러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위성/케이블 방송사를 설정해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 중남미의 마켓 개척에 나서 성공했다.

방송사 직납시장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한 발 빠른 정보 입수다. KOTRA 무역관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M사가 디지털 방송 프로젝트를 위해 STB 공급사 선정을 한다는 유용한 정보를 입수했다. A사는 무역관의 도움으로 M사의 경영진과 교신을 시작해 디지털 프로젝트의 STB 공급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방송사 직납시장에서는 한 번 비즈니스 기회를 보았다 해서, 가격, 납기, 결제 조건 등의 영업적인 요소만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 공격적이고 끊임없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품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투자 요소로, 중소기업의 경우 중도 포기하기 쉽다. 특히, 남미처럼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A사는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진을 파견했다. 첫 제품의 샘플을 기술진들이 직접 들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해 M사의 기술진과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약 1개월간의 초기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장기간 기술진 파견을 통해 기술 지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A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직접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M사의 경영진과 미팅을 진행해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대부분의 경쟁사의 경우, 남미같이 지리적으로 먼 곳은 지역 영업담당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출장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M사의 경영진에 상당한 호감을 주었고 거래 성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결국, 2만 달러 수준의 Trial PO를 접수해 선적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술진을 아르헨티나 현지에 파견해서 한 달이 넘는 장기 체류를 통해 처음 선적된 제품이 M사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끊임없는 적합성 테스트가 진행됐다. 적합성 테스트의 성공으로, 최초로 100만 달러 규모의 정식 수주를 받아 본 물량을 공급해 남미 아르헨티나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2) 신규시장 집중 공략

한국의 곡물식별기 공급업체인 D사는 아르헨티나에 제품 수출을 희망했지만,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현지 브랜드보다 낮은 상태였다. 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업체는 아르헨티나 주요 곡물 잡지에 D사의 곡물식별기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으며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농업부가가치 액이 150억 달러를 넘는 농업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곡물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정확한 시장정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업체는 아르헨티나의 각 곡물 시장조사를 시행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보다 전문적인 자료는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을 통해 입수했고, KOTRA의 Sales Rep 사업 운영을 통해 현지 주요 곡물 생산자들을 방문했다. 북쪽 지방 담배 생산기업 및 대두, 밀 생산기업을 방문해 가격경쟁력을 호소했고, 이러한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 D사는 매출을 전년 대비 727% 증가시킬 수 있었다.

3) 진출방향의 전환으로 시장확장

클러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V사는 기존 거래처가 있었으나 아르헨티나 전 정부의 자동차 부품 사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입규제로 수출 부진을 겪었다. 동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을 통해 수출 확대방법을 강구했고, 무역관 심층 조사결과 자동차 부품 수입/유통만 하는 업체들의 수입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현지 자동차 부품 생산기반을 둔 업체의 수입(부분품, 기타 자재)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완제품 수입이 어려우므로, 무역관 측에서는 자칫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아르헨티나 국내 클러츠 생산기업 중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Taranto 사와 접촉해 완제품 선전이 아닌 파트너링 사업(OEM, 기술이전)을 제시했고, 바이어는 OEM 및 기술이전 관련 파트너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현지 시장 확장에 성공했다.

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도 확보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업체인 H사는 다이아몬드 공구 수출 물류 작업 완화를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을 통해 물류작업뿐만 아니라, 신규 아이템인 멀티와이어 제품과 피켓제품을 마케팅하기로 협의를 했으며, 아르헨티나 내 관련 분야는 보수적으로 낯선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았다. 하지만 브라질 석재분야에서 얻어낸 성과와 생산성을 공유하며 점진적으로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지사화 사업을 등록하며 그 후로 연 3~4회가량 현지 출장을 통해 주요 업체(약 7개)와의 컨택을 유지했으며, 담당자와의 면담 및 멀티와이어 테스트 제안서를 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2017년 3개의 신규 거래처와의 수출에 성공했다.

담당자의 현지 출장뿐만 아니라, 현지 석중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팀의 방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지 담당 직원, H사의 담당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담당 직원이 함께 있는 단체 WhatsApp 방을 만들어 빠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현지 바이어와의 kontak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확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관광·상용 비자: 90일까지 비자 면제(No-Visa)

관광·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2003년 12월 27일부터,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2004년 7월 1일부터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아르헨티나 입국 후 90일 경과 전 현지에서 90일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비자 갱신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 후 재입국을 해야 하나, 재입국이 특별한 제재 없이 이루어진다. 보통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에서는 우루과이를 갔다 오는 것이 통상적이며, 출국 - 재입국 소요비용은 약 100달러이다.

2) 거주비자

상사 주재원 등이 발급받는 거주 비자의 경우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에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주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는 매년 아르헨티나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의 갱신허가를 받음으로써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 한도 금액(일반면세기준)

항공 또는 선박을 통한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은 50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250달러 이하)이며, 육로(교량 포함)를 통해 입국할 시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은 30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150달러)이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의류, 책, 신문 등 여행객이 통상 개인적 용도로 지참하는 물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 금액은 위의 개인 수하물 면세 한도 금액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면세 한도는 항공 또는 선박을 통해 입국 시 1인당 30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150달러 이하)이다. 육로(교량 포함)를 통해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은 15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75달러)이다. 면세금액 계산은 각각 별도로 행해지며, 상동 금액을 초과해 구입할 경우 초과되는 용품에 한해 50%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다. 출국 시에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컴퓨터나 기타 수입품들을 출국 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2018년 9월에 폐지되었다.

2) 휴대품 통관 정보(면세)

- 주류: 2리터 이하
- 담배: 400개비(cigar의 경우 50개비)
- 향수: 특별한 제한 없음.

3) 외국환신고

입국 시 미화 10,000달러 혹은 이에 상응하는 타 외국환 소유 시 세관에 신고 및 OM 2087 양식 등록이 요구된다. 출국 시에는 만 22세 이상 여행객의 경우, 10,000달러 이상(또는 상동 금액의 타 외국환이나 금품류 포함)의 휴대 반출을 금지한다(단, 금융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허가서 지참). 한편, 만 16~21세인 경우 2,000달러까지, 만 16세 미만은 1,000달러까지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의 휴대가 가능하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

전화번호	(+02) 797-0636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천우빌딩 5층 534, 우편번호 140-861
홈페이지	http://ecore.cancilleria.gov.ar/ko

○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Av. del Libertador 2395
주소	(+54 11)4802-8865
홈페이지	http://arg.mofa.go.kr/

○ 재아르헨티나 한인 상인연합회

전화번호	(+54 11) 5365-7090
주소	Concordia 540 3층 C호,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iacea.com.ar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아르헨티나 정부

전화번호	(+54 11) 4344-3600
주소	Balcarce 50, CABA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

○ 산업통상부

전화번호	0800-333-7963
주소	Av. Pres. Julio A. Roca 651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produccion

○ 클라린 신문사 (Clarín)

전화번호	(+54 11) 4309-7500
주소	Piedras 1743, CABA
홈페이지	https://www.clarin.com/

○ 재정부

전화번호	(+54 11) 4349-5000
주소	Hiplito Yrigoyen 250, CABA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hacienda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40.7아르헨티나 페소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87
2	식품	비빔밥	1인분	4.9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5.65
4	식품	신라면	1봉지	1.47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21
6	음료	생수 (1.5L 마트, 최저가)	500ml	0.67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86
8	의료	항생제(AMOXIDAL 1g)	12정	2.7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34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34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79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9.83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05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5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6.86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1.96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4.91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월)	245.7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3096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2018년 12월 기준)	%	6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DESUR(전기공사), Lincoln국제학교, preciosmundi.com>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페소(peso)로 약칭은 "ARS"이다. 1 페소는 100센타보(centavo)이며 주화로는 1, 5, 10, 25, 50 센타보 그리고 1, 2, 5페소가 있으나 1 또는 5 센타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 500, 1,000페소가 사용되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 신분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할 수 있으나,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의 환전은 적용 환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로 대부분은 시중 비공식 환전소를 이용한다. 즉, 일종의 Open된 환전 마켓인데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많은 아르헨티나인이 거의 공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항 소재 환전소 또는 은행의 환율은 좋지 않으므로,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플로리다 거리 등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 거리나 상점에서는 달러화 지급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된 편으로 현지식당, 쇼핑센터, 호텔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대대적인 자금 양성화 정책의 일부로 현 정부는 2018년 4월까지 모든 도·소매 상점의 카드사용시스템 도입 또한 의무화했다. 그러나 가맹점마다 사용될 수 있는 카드사가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에 물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식당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므로 페소 또는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출퇴근 시간에는 대로변에 교통체증이 있으며, 오벨리스크 근처, 센트로에는 낮시간 (오후 12시 - 15시)까지 교통체증이 심하며, 주차가 어려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아르헨티나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 주위로 자주 대모가 일어나며, 대모가 일어나는 날에는 주위 교통은 물론 도시 전체가 교통체증에 시달린다. 이러한 이유로, 오후시간에 이동할 시 교통상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버스

구간에 따라 요금이 상이(2018년 11월 기준 기본요금 14페소)하며, 노선이 복잡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쉽지 않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지하철과 버스 간에 환승 제도가 없으므로 갈아탈 경우에는 요금을 새로 지불해야 한다. 버스요금 지불 시 지하철 이용 시와 같이 SUBE 교통 카드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고, 현금 지불은 불가능하다. 택배업체인 OCA 또는 지하철역에서 30페소에 구입이 가능하며 우체국, 가판대, 구멍가게(Kiosco) 등 곳곳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택시

시내 교통으로는 택시 이용이 가장 쉬운 편이며 현재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3,500대 이상의 택시가 운영 중이다. 운전사에게 거리 이름과 번지만 주면 정확하게 안내해주며, 요금은 앞좌석 상부에 미터기가 부착돼 있다. 2018년 11월 기준 기본요금은 32.60페소이고, 거리 시간 병산제로 200m 및 1분당, 3.26페소씩 추가된다.

요금 지급 시 팁 지불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소액의 잔돈 정도를 주면 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할증이 붙어 일반요금의 20%가 더 부과되며, 기본요금 39.19에 추가 요금은 3.91페소이다.

- 콜택시: (+54 11) 5238-0000 (+54 11) 4932-2022

레미스(REMIS)

자가용 영업차로 레미스 회사에 전화로 택시를 요청하면, 콜택시처럼 집이나 호텔에 도착한다. 미터기는 없고 요금은 거리에 따라 사전에 정하는데, 택시보다는 안전도가 높아 현지인들의 이용도가 높다. 최근에는 택시 강도사건이 증가해 택시를 거리에서 잡는 것보다, 레미스 또는 콜택시(Radio Taxi)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없다. 장거리 운행에 용이하며,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운전기사가 불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 좋다.

우버(Uber) 택시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에서는 이용 가능하며, 카드로 계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신상정보 및 여행 거리에 따른 요금도 미리 측정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최근 많이 이용되는 추세다.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6호선까지 운영되고 있고, 방사선형으로 도심으로만 집중돼 있어 외곽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하다.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지하철의 1회 요금은 13.5 페소이고, 교통카드인 SUBE를 사용해야 한다. 시간이나 거리 제한이 없으며 다른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하고,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이 없다. 2018년 기준 A, B, C, D, E, H 6개 노선과 프레메트로라는 시내 전차 1노선이 있다.

기차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외곽으로 갈 때에는 도심을 연결하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 이용요금은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이며 마찬가지로 교통카드인 SUBE를 사용한다.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목적지의 치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 통신

핸드폰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 혹은 유심칩을 새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모비스타(Movistar), 페르소날(Personal), 클라로(Claro), 넥스텔(Nextel) 4개사가 있으며, 저렴하게 유심칩을 구매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 임대는 복잡하고,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인 정액요금제(plan) 가입이 번거롭기 때문에 선불요금제(pre pago)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용이하다.

인터넷(와이파이)

TV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아르헨티나 유선전화 시장인 텔레포니카 아르헨티나(Telefonica Argentina)와 텔레콤 아르헨티나(Telecom Argentina)사가 인터넷+케이블+유선전화 결합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속도에 따라 1500~2000페소로 요금에 차이가 있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까삐탈 지역 상가는 대부분 와이파이기가 무료로 설치되어 있으며, 와이파이 연결 비밀번호는 해당 상가 점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지하철 또는 공원 등에도 와이파이기가 설치되어 있다.

라. 관광명소

○ 이과수 폭포(Catarata de Iguazu)

도시명	미시오네스 주
명소소개	1984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과수 폭포는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손꼽힌다. 밀림 속에 있는 폭포로, 브라질 쪽과 합해 약 300개의 폭포가 떨어지는 폭포 중의 폭포라 할 수 있으며,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답고 장엄한, 문자 그대로 세계 제일의 폭포이다. 높이는 물론 폭포의 길이도 나이아가라보다 훨씬 더 긴 4km에 이른다. 폭포 자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에 걸쳐 있다.
비고	항공 사정상 당일 관광은 불가능하고, 충분한 관광을 위해서는 2박 3일 정도가 소요된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양국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항공로를 상파울루-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 편으로 하는 것도 시간 및 예산 면에서 유리하다.

○ 라 보카 지역(La Boc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지역. (Av. Martn Garca, Av. Paseo Coln, Brasil, la Drsenasur y el Riachuelo)길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명소소개	라플라타(La Plata) 강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최초의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 이민자들의 거주지였으며, 18세기 이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항구였다. 보카 지역에는 아르헨티나 최고 축구클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보카 주니어스(Boca Juniors)의 홈구장이 있다. 화려한 원색으로 치장한 카미니토(Caminito) 거리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명소이기도 하다.
비고	이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층 집단 주거지로, 야간에는 치안이 나빠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낮에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곳이다. 관광 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바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 카사 로사다(대통령 궁)(Casa Rosad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Balcarce 50, C1064 CABA
운영시간	토, 일, 공휴일: 10:00~18:00
명소소개	1873년 당시 사르미엔토(Sarmiento) 대통령이 여당의 빨간색과 야당의 흰색을 조합한 장미색을 양 정당간의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색칠한 데 연유하고 있다. 스페인 로코코 풍의 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까지 건설돼 역대 대통령의 공식 행사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쓰이기도 했고, 10만 명이 전국에서 운집한 가운데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영부인이 연설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주말에는 일반인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돌아볼 수 있다.
비고	5월 광장(Plaza de Mayo), 북쪽의 대성당(La Catedral)에는 독립의 영웅 산마르틴의 묘가 있고, 서쪽에는 역사 기념물로 지정된 카빌도(Cabildo: 총독부)가 있다.

○ 레콜레타 묘지(Cementerio de la Recolet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	---------------------

주소	Junn 1760, C1113 CABA
운영시간	월~일: 7:00~17:30
명소소개	1882년 사방 150m 규모로 개설된 유서 깊은 묘지로, 이 중 70여 개의 묘는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에비타(Evita) 무덤이 있는 레콜레타는 아르헨티나 유명인사의 가족 묘지로서, 조그만 대리석 묘원에는 누대의 유골이 함께하고 있다. 예술적인 건축 기술 및 조형물들로 인해, 묘지 같은 느낌은 하나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에비타의 무덤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규모 또한 크지 않아 막상 도착하면 실망하기 쉽다.

◦ 국회의사당(Congreso Nacional)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Av. Rivadavia 1864
명소소개	민주주의와 입법권을 상징하는 그레코로만 양식의 위엄 있는 건물이다. 이탈리아인 빅토르 메아노(Vitor Meano)가 설계해 1897년에 건축을 시작, 1906년에 완공됐다. 5월 대로를 통해 대통령 궁(Casa Rosada)과 연결돼 있다. 광장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복제품, 기념비와 분수대가 있어 일반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5월 광장과 더불어 정치 집회가 많은 곳이다.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하다)

마. 식당

- 현지식당

◦ 칸사스 그릴 바(Kansas grill bar)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776-4100
주소	Av. Del Libertador 4625
가격	USD 9.82
영업시간	일~목 12:00~24:00 금, 토 12:00~1:30
소개	미국식 식당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라 브리가다(La Brigad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361-4685
주소	Estados Unidos 465
가격	USD 31.94

영업시간	월~일 12:00~15:00, 20:00~24:00
소개	아사도, 스테이크 전문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해프닝(Happening)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319-8712/8
주소	Av. Alicia Moreau de Justo 310
가격	USD 19.65
영업시간	월~일 12:00~2:00
소개	아사도 전문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니혼바시(Nihonbashi)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800-1322
주소	Moreno 2095
가격	USD 31.94
영업시간	월~토 19:30~23: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일식 고급 식당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홍콩스타일(HongKong Style)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786-3456
주소	Montaeses 2149
가격	USD 19.65
영업시간	월, 화, 목 20:00~23:00 금, 토, 일 12:30~15:30, 20:00~23:00
소개	중식 고급 식당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한국식당

◦ 향가()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631-8852
주소	Av. Carabobo 1549
가격	USD 10
영업시간	월~금 18시부터 토, 일 공휴일 낮 12시부터
소개	삼계탕, 보쌈, 칼국수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도마()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2000-4139
주소	Moron 3574, CABA
가격	USD 12.5
영업시간	월~토 12시~14시, 18시~22시
휴무일	토, 일요일
소개	보쌈, 닭갈비, 냉면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수라()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671-3091
주소	Pez 3361, CABA
가격	USD 15
영업시간	월~일 17:30~22:00
소개	아사도 정식 (아르헨티나식 고기구이와 한식반찬)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더(The) 큰집()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612-1385
주소	Felipe Vallese 3209
가격	USD 15
영업시간	월~토 18:30~22: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고기정식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힐튼호텔(HOTEL HILTON)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Av. Macacha Guemes 351
전화번호	(+54 11) 4891-0000
홈페이지	http://www.hiltonbuenosaireshotel.com/
숙박료	260달러(싱글, 트윈)
소개	2002년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비즈니스 센터와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다.

○ 파나마메리카노 부에노스아이레스 호텔(HOTEL PANAMERICANO BUENOS AIRES)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Carlos Pellegrini 551
전화번호	(+54 11) 4348-5000
홈페이지	https://www.panamericano.us/es/
숙박료	156달러(트윈, 더블/조식 포함)
소개	최대 거리인 7월 9일 대로(9 de Julio) 변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로 주요 상권, 정부부처, 금융센터 근처에 위치해 있다.

○ 멜리아 부에노스아이레스 부티크(MELIA BUENOS AIRES BOUTIQUE)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Reconquista 945
전화번호	(+54 11) 4891-3800
홈페이지	https://www.melia.com/
숙박료	140 달러(싱글, 트윈/조식포함)
소개	1999년에 새로 문을 연 스페인 Melia 호텔의 체인으로, 중형 비즈니스 호텔로서 상가 및 은행가에 인접해 있다.

- 게스트하우스

o 남미사랑 호스텔()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Av. Bartolomé Mitre 1691, B1873AMC CABA, Argentina
전화번호	(+54 11) 3221-3235
숙박료	8달러
소개	아르헨티나 관광지역 산텔모에 위치

o 호텔 크리스탈 스위트(Hotel Cristal Suite)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Moron 2893
전화번호	(+54 11) 2310-7077
숙박료	50~90달러
소개	한인 상업밀집지역 아베자네다에 위치

사. 치안

치안상황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남미 국가 중 치안이 좋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나, 2001년 말에 발생한 경제침체 영향으로 치안상태도 악화됐다.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사건, 강도, 살인사건 등이 주류로 대법원 판사, 현직 장관 등도 집 부근에서 강도를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출 시 신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고, 야간에는 도심이나 변두리, 인적이 드문 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고, 필요한 경우 2~3명 이상이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벽 또는 야간에 혼자 보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의 경우 택시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콜택시(Radio Taxi)나 레미스(Remis, 콜택시의 일종으로 일반 개인 승용차 형태) 또는 Uber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한인촌(일명 백구) 그리고 한인 상점 1,200여 개가 밀집되어있는 아베사네다 상업지구 부근에서도 강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 외교부에서 아르헨티나를 여행유의국가로 분류했다.

또한, 한인타운 치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최근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방범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이민자들로 인해 퇴근 시간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과 총기사건, 야간시간 차량을 이용한 강도 사건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치안 불안 지역이다. 이에 한인방범위원회에서는 아베사네다 상가 지역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방범훈련을 실시하는 등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의 강절도 사건의 피해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064명에 이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강절도 사건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따라서 고가품이나 과다한 현금 등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항공권·고가품·현금 등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회사직원의 현장 방문과 견인차를 기다린다. 필요한 경우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 신분증, 보험회사정보를 주고 받으며, 상대방 운전자의 등록증(cedula), 자동차보험증서, 보험료 납입증서, 운전면허증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가용 이용 시 운전자의 해당 자가용 사용이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자동차 등록 국토 관리청(DNRPA)에서 등록증(Cedul)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등록증 없이 운전 시 차주가 동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교통 당국에서는 절도된 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를 압수할 수도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또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보험료 납부서, 차량 등록증, 차량 정기검사증 지참하여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로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단수여권 또는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단, 다른 나라로 경유를 원할 시 국가별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으니, 미리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나라가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신고서 및 재발급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항공권
- 발급비용:
 - 일반여권: 1,800페소. 약 3주 소요 또는 급행 시 30불 추가 결제 후 약 4~7일 후에 수령 가능
 - 단수여권 : 630페소(부착식). 당일 발급 가능
 - 여행증명서 : 294페소. 당일 발급 가능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00
- 범죄 신고: 195 또는 911
- 앰블런스 서비스: 107(사립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응급서비스에 연락)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매매와 임대차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주택이나 사무실을 구입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시민권, 영주권(DNI) 또는 적법한 비자 등 법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 2~3개월 단기체류 외국인의 아파트 임차는 예외이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임대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한다. 최근에는 일부 건물 소유주가 직접 원매자나 임대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빈부 격차가 심해 소수가 대부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번거로운 거래관계를 직접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임대 또는 매각을 원하는 건물에는 매매(venta) 또는 임대(alquiler)라는 간판이 건물에 돌출형으로 부착돼 있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착한 것이며, 연락처는 부동산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이다. 거래 성사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원매자는 주인과 직접 대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협의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하게 된다.

2)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매매

○ 임대

- 부동산 수수료: 임대 총액의 5.0%(부가세 별도). 임대 기간 연장 시(예: 3년 임대 후 추가 3년 연장 시)에도 추가 연장 기간에 대해 부동산업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 보증금: 임대료의 2배

·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수도)의 경우,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법이 발행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계약 시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많은 편이므로 임대 시 잘 확인해야 한다.

○ 매매

- 부동산 수수료: 매매가격의 3~4%(부가세 별도)

3) 임대 보증인 및 집 보증

임대 시 세입자는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증인을 제시해야 한다. 주인 또는 세입금액에 따라 보증인은 1~2명이 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부동산은 보증인 신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한다. 보증인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 1년 치 임대료를 선불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에서 Garantia Propietaria라는 부동산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보증품이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Seguro de Causion 이라는 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는 가능하나 관련 보증은 임대료를 2~3개월 치를 더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요구하는 점은 아니며,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많이 바뀌는 부분이니 부동산을 알아볼 때 관련 정보는 미리 요구해야 한다.

4) 임차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이 일반적

주택이나 사무실 임차 모두 재계약 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임차료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전화

아르헨티나 유선전화 시장은 텔레포니카 아르헨티나(Telefonica Argentina)와 텔레콤 아르헨티나(Telecom Argentina)사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회사별로 인터넷+케이블+유선전화 결합 상품의 경우 인터넷 속도에 따라 1,500~2,000페소로 요금에 차이가 있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의 연락을 위해 인터넷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전화의 경우는 할인인 많은 편이다. (최대 70%까지 할인 가능)

*1USD=38.7ARS(2018.12.11 기준)

전압/플러그

가정·사무용 전기는 220V, 50Hz이다. 아르헨티나의 전자제품 연결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나이프(knife) 모양이다. 한국(220V 원형)이나 미국(110V 1자 형)의 연결구가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커넥터를 준비해야 한다.

식수

출장자나 여행객은 생수를 호텔 또는 슈퍼에서 구입하여 음용하는 것이 좋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의 수도물은 소독을 위해 염소를 많이 넣어 음용하기로는 좋지 않다. 생수의 경우 Agua sin gas(아구아 썬 가스)와 소다수인 Agua con gas(아구아 쏜 가스)가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아르헨티나에서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로, 그중에서도 도요타 차량이 많이 선호된다. 차량 할부 구입 시스템은 회사마다 다르며 Citroen, Renault 사는 두 모델에 한하여 최대 24개월 무이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니 차량 구매 시 브로커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차량가격

아르헨티나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은 비싼 편이다. 2018년 11월 기준 제일 저렴한 자동차는 중국계인 Cherry QQ 사의 Light Security로 최저가격은 36만 페소이다 (1USD=38.7ARS(2018.12.11 기준)).

대중적으로 일본 자동차인 혼다와 도요타사의 제품들을 가성비 면에서 좋게 보는 편이며, 독일제의 폭스바겐 그리고 프랑스제의 푸조도 중산층에서 대중적이다.

새 자동차와 중고차 가격을 비교하기 쉬운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아우토 포코: <https://www.autofoco.com>
- 데 모토레스: <https://demotores.com.ar>

운전면허 취득

1) 국제면허 사용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 면허증 사용은 불가하다. 현지에서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국제면허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하니 현지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면허증의 경우, 국제면허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 불가능하니 유효기간 이후에도 운전해야 할 경우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 운전면허 취득

아르헨티나는 주마다 면허 취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운전면허 취득 시, 재아르헨티나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준다. 우선, 인터넷과 일반전화로 신청해 절차 진행 순서표를 받아야 한다. 5시간에 해당하는 운전소양강습 확인증(Charla de Teoria)이 요구되며, 자동차 운전 교육원에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있으며, 청각, 시각, 정신과 상담의와의 테스트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35문제 중 75%가 합격 기준이며, 난이도는 우리나라 필기시험과 비슷하다. 시험은 다국어로 응시가 가능하다(한글 번역 시험지 존재). 실기시험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시험관과 동승해 시험이 진행되고, 시험관의 평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즉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 운전면허 취득 시 필요서류
 - 운전소양강습 확인증, 영주권 사본, 세금 납부서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Argentina): 중앙은행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해 통화공급을 조절해 화폐가치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Law of Financial Entities 9 법률 제2156호)에 근거해 은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감독원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면허를 부여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하기 링크에서 중앙은행에서 허가한 은행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cra.gob.ar/SistemasFinancierosYdePagos/Sistema_financiero_nomina_de_entidades.asp?bco=AAA00&tipo=1

- 주요 은행 리스트
 - 국립은행(Banco Nacin)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
 - 부에노스아이레스 은행(Banco de la Ciudad)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 은행
 -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Rio)
 - 중국공산은행(ICBC)
 - 갈리시아 은행(Banco Galicia)
 - 프랑스 은행(Banco Frances-BBVA-)

계좌 개설방법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정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예금의 종류는 당좌예금계정(Cuenta corriente bancaria), 저축은행계정(Cuenta de caja de ahorros), 법인특별당좌계정(Cuenta corriente especial para personas juridicas)과 정기예금(Plazo fijo)으로 나뉜다.

-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각국의 외교사절단: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영주권(DNI) 사본
 - 세무사업자등록증(CUIT) 사본
 - 공공요금납부증명서 1매(전기, 수도, 전화 등 주거지 확인용)

○ 당좌예금 계정 개설

- 목적: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은행이 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예금이다. 은행은 지급 시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할 의무를 가진다. 자금의 보관 또는 지급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이다.
- 개설조건: 당좌예금계정의 개설조건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때 개설조건에 대한 정보는 고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하며, 이 개설조건은 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으며, 조건이 변경될 시 반드시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금융기관이 정하게 돼 있고, 이는 개설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돼야 한다.

○ 저축은행 계정 개설

- 목적: 저축예금은 가계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계정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롭다.
- 개설조건: 계약 체결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이 저축은행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1인 기업(Empresa unipersonal) 외의 법인은 저축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은 최소 4개월에 한 번씩은 거래내역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거래내역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비용: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이는 각 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예치금 전액을 출금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Lincoln International School - Asociacin Escuelas Lincoln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커리큘럼	미국계 학교로 외국 상사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자녀가 대부분 취학하고 있는 학교이며, 초, 중, 고등학교로 구성돼 있다. 중학교 이상은 완전히 영어로만 교육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등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이 용이한 편이나 현지교육법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학비	4세반: 1,875 달러 5세반: 2,558 달러 1~5학년: 3,348 달러 6~8학년: 3,495 달러 9~12학년: 3,870 달러 (등록금 미포함. 연간 2,678~3,096달러)
홈페이지	https://www.lincoln.edu.ar/

○ BAICA - Buenos Aires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커리큘럼	기독교재단 미국 국제학교로 몇 외국 상사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자녀가 취학하고 있으며, 교회 목사들의 자녀가 많이 재학 중이다. 초, 중,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이상은 완전히 영어로만 교육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등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이 용이한 편이나 현지교육법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학비	유치원: 5,300~7,440페소 1~7학년: 10,450~12,735페소 8~12학년: 13,900~15,380페소 *1USD = 38.7ARS(2018.12.11 기준)
홈페이지	https://www.baica.com/

- 현지학교

o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중고등학교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커리큘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중고등학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고등학교 출신의 많은 유명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은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현지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매년 취학하기 위해 1년 동안의 입학시험 과정을 거친다.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www.cnba.uba.ar/
비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립학교 특성상 현지 데모가 있을 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o 아르헨티나 한국학교(ICA)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커리큘럼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는 전일제 학교로서 1995년 한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획득한 교육기관이다. 한국어 & 스페인어 병행이며,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구성돼 있다.
홈페이지	http://www.e-ica.org/
비고	1995년 한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획득한 교육기관

마. 병원

o 코리안 메디칼(Korean Medical)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Nazca 388, 5층
전화번호	(+54 11) 4613-576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내과, 소아과, 안과는 한국어로 진료가능, 다른 과는 통역 가능(리셉션에 부탁 시)

o 독일병원(Hospital Aleman)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Pueyrredon1640, CABA
전화번호	(+54) 0800 555 27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코리안 메디컬과 협약

○ 스위스 메디컬(Swiss Medical)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Pueyrredon 1486, CABA
전화번호	(+54 11) 4344-15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알바레스 병원(Hospital Alvarez)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Dr. J. F. Aranguren 2071
전화번호	(+54 11) 4611 6666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재아르헨티나 상인 연합회(<http://www.iacea.com.ar/gnu/bbs/a-address-category.html?dato=%BA%B4%BF%F8>)>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Unicenter

주소	Parana 3745, Martinez, Buenos Aires
홈페이지	http://www.unicenter.com.ar/
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최대 규모 쇼핑몰이다.

○ Alto Palermo Shopping

주소	Av. Santa Fe 3253, CABA
홈페이지	http://www.altopalermo.com.ar/
비고	아르헨티나 수도의 대표적인 쇼핑몰이다.

○ Galerias Pacifico

주소	Av. Cordoba 550, CABA
홈페이지	https://www.galeriaspacifico.com.ar/
비고	소규모 백화점이지는 하나, 백화점 내의 벽화, 갤러리 그리고 아름다운 외관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 받는 명소이다. 관광명소 중 하나인 플로리다 거리에 위치해 있다.

◦ Abasto Shopping

주소	Av. Corrientes 3247, CABA
홈페이지	http://www.abasto-shopping.com.ar/
비고	아르헨티나 수도의 대표적인 쇼핑몰로 지하철 라인 B Carlos Gardel 역에서 바로 쇼핑몰로 진입 가능하다.

◦ Alcorta Shopping

주소	Jernimo Salguero 3172, CABA
홈페이지	https://www.alcortashopping.com.ar
비고	소규모 백화점으로 Palermo동에 위치해 있다.

〈자료원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 식품점

◦ 삼보 마트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Campana 563, CAB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한국 수입 식료품

◦ 만나 식품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Moron 3269, CAB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한국 수입 식료품

- 기타 편의시설

◦ 희망 골프장(Esperanz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소	Sargento Cabral 2191

소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 소재한 한인 골프장
----	-------------------------

◦ 메가틀론(Megatlon)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licia Moreau de Justo 1600, CABA
홈페이지	https://megatlon.com/
소개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헬스클럽

◦ 클럽 데 아미고스(Club de Amigos)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Pres. Figueroa Alcorta 3885, CABA
홈페이지	https://clubdeamigos.org.ar/
소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 소재한 종합 운동장. 테니스, 수영장, 하키, 축구, 휘트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다.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19-01-01	전날인 12월 31일도 비근로일이다.
카니발	2019-03-04	3월 4~5일
진실과 정의를 기억하는 국경일	2019-03-24	
말비나 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날	2019-04-02	
성 금요일 (부활절)	2019-04-19	전날 성목요일도 비근로일이다.
근로자의 날	2019-05-01	
5월 혁명의 날	2019-05-25	
마르틴 데 구에메스 장군을 기리는 날	2019-06-17	
마누엘 벨그라노 장군을 기리는 날	2019-06-20	
독립 기념일	2019-07-09	전날 월요일도 비근로일이다.
산 마르틴 장군을 기리는 날	2019-08-17	대체 가능한 공휴일로, 2019년에는 19일(월요일)로 대체된다.
문화 다양성 존중의 날	2019-10-12	대체 가능한 공휴일로, 2019년에는 14일(월요일)로 대체된다.
국가 주권의 날	2019-11-20	대체 가능한 공휴일로, 2019년에는 18일(월요일)로 대체된다.

성모 마리아 수태일	2019-12-08	
크리스마스	2019-12-25	전날인 12월 24일도 비근로일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Olga Cossettini 831, 2층 (1107), CABA, Argentina
- 전화번호: (+54 011) 4312-0033
- 이메일: kotra@kotra.org.ar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우버 택시: Uber Argentin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후 목적지를 입력하고 우버와 접촉을 기다리면 된다. 비용은 보통 400페소 내외다.
 - 택시 또는 레미스(Remis: 일반승용차이나 콜택시 형태로 운행되는 합법영업 교통수단): 공항의 출국장 레미스 스탠드에서 사전에 주소를 보여주고 쿠폰을 구입하면 승차장을 안내해준다. 비용은 700페소 내외다.
 - 버스: 시내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으며 19.7페소로 국제공항과 5월 광장(Plaza de Mayo)을 연결한다. 2018년 7월부터 8번 라인 버스사가 국제공항과 시내를 1시간 반에 잇는 준고속 버스를 유치했다. 배차시간은 30분에 한 대이다.
- 건물 도착 후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해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온 뒤, 코트라 사무실의 초인종을 누르면 된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